

↑ 코스피 2503.06 (+6.69)	↓ 코스닥 692.00 (-1.15)
↓ 금리 (연율) 2.741 (-0.0326)	↓ 환율 (원/달러) 1395.10 (-2.10)

## 분당·일산 등 13곳 3만6000가구 공급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내달 이주대책·교통 개선안 발표  
정비계획 연내 승인에 적극 협조  
학교문제·분담금 산출 지원 등  
사업지연 요인 사전적 대응키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를 추진하는 선도지구 13곳이 선정됐다. 총 3만 6000가구가 당초 예상했던 최대치에 근접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6월 공모 지침 공고와 9월 지자체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상위 지점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 고시 완료했고,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했다”며 “내달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희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 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 분당은 셋별마을 동성(2843가구)과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등 3개 구역에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2732가구)와 후곡마을 3단지(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3616가구) 등 3개 구역 8912가구가 선정됐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 금호(1750가구)와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3개 구역 5460가구가. 부천시 중동은 삼익(3570가구)과 대우동부 등(2387가구) 총 6000가구가. 군포시 산본은 자이 백합(2758가구), 한양 백두 등(1867가구) 4620가구가.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가운데 연립 2개 구역, 1400가구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했다.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 등으로 선도 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이-헤즈볼라 휴전,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했다. 양측간 전쟁이 발발한지 416일 만이다. 27일(현지시간) 레바논 가지에 도로가 고향 마을로 돌아가려는 실항민들의 차량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뉴시스

위해 ▲학교 문제 사전 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방식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조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 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향후 6개월, 韓산업 골든타임 정부, 업계지원 총력 다할 것”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반도체·AI 혁신 생태계 전면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향후 수개월의 시간에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정부가 업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기술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 기구축 방안에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고 운을 뗐 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산업경쟁력 전면에서 나서서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방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회의에서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 직후 최 부총리는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방문해, 국산 AI-반도체 설계 및 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또 최근 급성장을 거듭 중인 AI-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위기의 삼성, 안정 택했다... 투톱체제 유지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전영현 대표이사 메모리 직접 지휘  
파운드리 사령탑엔 한진만 부사장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재기를 키워드로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과 한종희 DX(디바이스경험) 부문장(부회장)을 재신임하고 ‘투톱’ 체제를 유지하고 전 부회장에게는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까지 함께 맡기며 권한을 대폭 확장시켰다.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의 사령탑인 정현호 부회장도 유임시키는 등 부회장 체제를 강화했다. 퇴임한 인사를 불러들이거나 과거 경영진들은 보직만 변경되면서 혁신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

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한종희-전영현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며 실적악화에 시달린 반도체 부문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기존 한종희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다시 전 부회장까지 합류하며 두 대표이사 체제로 나선 것이다. 또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하는 한편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과 새 도약을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체제로 전환하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수장을 교체했으며 ▲경영역량이 입증된 베테랑 사장에게 신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는 등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조직

분위기 일신을 위해 ▲파운드리사업부에 사장급 CTO 보직과 ▲DS부문 직속의 사장급 경영전략담당 보직을 신설했고, 시니어 사장들에게 브랜드 및 소비자경험 혁신 같은 도전과제를 부여해 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하고 전 부회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인 정현호 부회장도 유임시켰다.

반면 파운드리 사업부 사령탑은 한진만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총괄 부사장으로 교체됐다. 또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보직을 신설하고 남석우 DS 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배치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BSI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윤, 중장진급자들에 “안보상황 엄중... 군대비태세 유지” 당부 /사진 뉴시스  
▲“불법” vs “적법”... 횡단보도 걸친 한 동훈 차 놓고 ‘시끌’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야, 법사위서 양곡관리법 등 강행 처리... 농림부 장관 해임 추진도



▲학교 찾은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강조 /사진 뉴시스  
▲민주, 채상병국정조사특위 명단 제출... 위원장에 5선 정동영

# 최태원 “飲水思源 되새기며 사회환원 디자인하는 인재되길”

(SK 회장)

(음수사원: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일컫는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향후 미래 인재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설립한 교육재단으로, 최 회장은 제 2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길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론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할지 자신이 디자인하고 가치관과 끈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학의 획일적인 교육이나 박사 학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단은 시험을 봐서 장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스스로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가치관·끈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뽑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종현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재단 설립 50년간 지원받은 인재 수 5128명 최 회장 자녀 최윤정·인근 남매 참석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 등 매진” 고등교육재단, 플랫폼 확장 도모

선대 회장이 1974년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설립한 교육재단이다. 최 회장은 1998년부터 제2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50년간 지원 받은 인재의 수는 5128명에 달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초대 이사장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AI 영상으로 살아난 최종현 선대회장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마음에 씨앗을 심어라’라고 했는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꿈을 가지라는 뜻도 있었지만 조금씩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뜻이었다”며 “우리는 자네가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비전 발표도 진행됐다.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대표는 “나무를 가꾸듯 사람을 키우고 인재의 숲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는 재단의 새 미션과 함께 “시대를 이끄는 K

FAS형(Knowledge-driven, Forward-thinking, Action-oriented, Socially-conscious)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용적 지식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에 더해 플랫폼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아이디어를 직접 설명하며 추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최종현학술원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과학기술 분야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을 통해 학문적인 내용을 현실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FAS형 인재는 대학제적 지식을 갖추고 미래 시대를 선도하며 확장한 사고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며 협력과 창의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 기여를 통한 포용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인재를 뜻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재열 초대 사무총장, 박인국 전 사무총장, 최병일 전 사무총장 등 재단 및 SK 관계자, 장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최 회장의 자녀인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과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도 참석해 최 회장과 밝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B 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금융을 잘안다 보험을 잘한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태아보험

여행자보험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KB 손해보험**

## 반도체 악화, 트럼프發 위기 기업 체감경기 또 얼어붙어

한은, 기업경기조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업황이 악화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제조업 기업들의 경영애로 배경에 ‘환율’을 응답한 비중은 2년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CBSI 90.6 전달보다 2p ↓**  
**내달 전망치 90 밑도는 88.9 예상**  
**제조업 경영애로 ‘내수부진’ 26%**  
**불확실한 경제상황 18% 등 나타나**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대비 0.6포인트(p) 하락한 91.5를 기록했다.

C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0.6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p 하락했다. 제품재고(-1.1p)와 자금사정(-0.8p)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0월(9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다음달 전망치는 90을 밑돈 88.9

로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환율’을 응답한 비율은 10월 3.7%에서 11월 6.7%로 증가했다. 환율이 경영애로사항 상위 6개안에 들어간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환율 응답 비중 역시 2022년 11월(8.3%) 이후 가장 크다.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6.0%)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수출부진(9.1%) ▲인력난·인건비상승(9.0%) ▲원자재 가격상승(7.6%)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4p 상승한 92.1을 기록하면서 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채산성(+0.1p)과 매출(+0.3p)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달 전망치는 전달 전망한 89.2보다 1.1p 상승한 90.3으로 집계됐다.

비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0.3%) ▲불확실한 경제상황(18.8%) 인력난·인건비상승(14.5%) ▲자금부족(9.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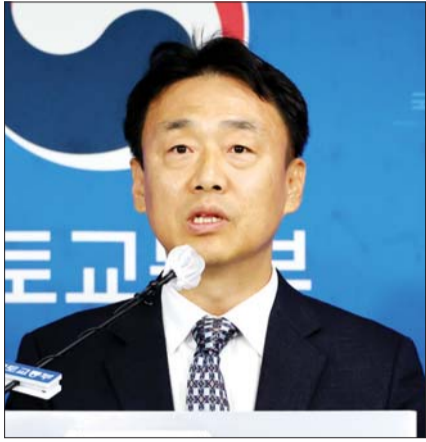
가계와 기업의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총체적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0.2p 오른 92.7을 기록했다. E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를 반영한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3.8로 전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이르면 내후년부터 이주 시작... '분담금·공공기여' 변수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2027년 착공... 입주목표 2030년 연쇄 이주로 전월세 부족 우려도 국토부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는 선도지구의 입주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빠르면 2026년 말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변수는 많다. 이주대책은 물론 분담금에 따라라도 사업진행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3만6000가구의 이주대책은 다음달 중으로 나온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첫 착공은 2027년, 첫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진행이 빠른 단지부터 2026년 말에는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대규모의 이주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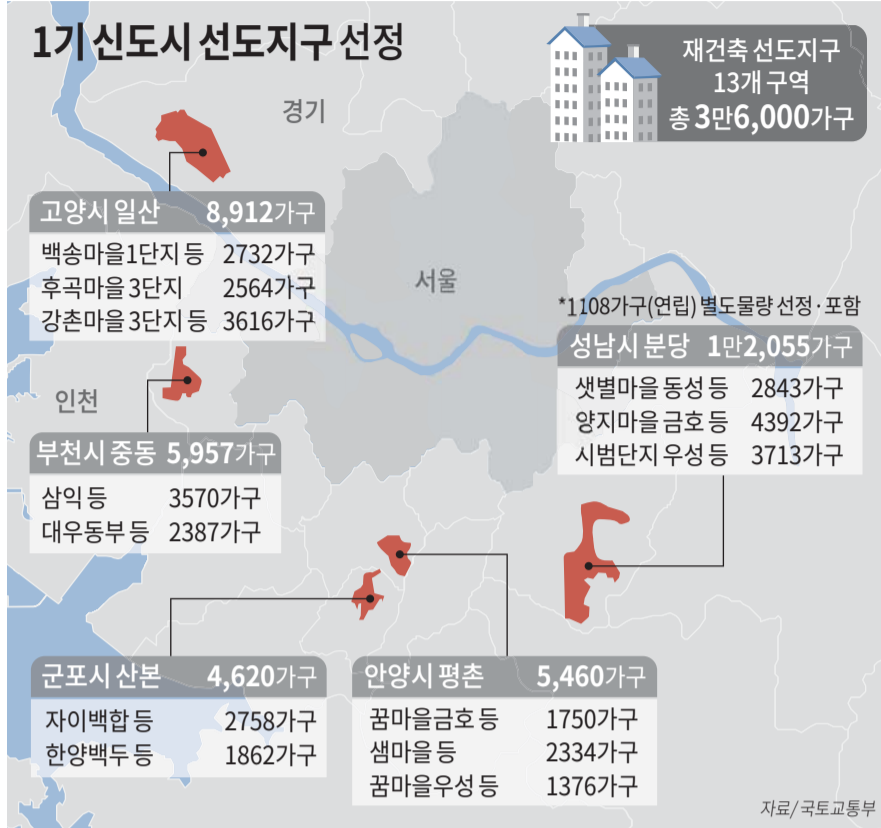
일단 별도의 이주용 단지 등은 짓지 않는다. 인근 유희부지와 함께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이주가 없는 경우 공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해서 전월세시장에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정된 공급과 수요를 비교해서 어느 시점에 과연 전월세시장에 마찰이 생길 것인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정 단지의 이주가 확실시되면 해당 주택을 임시로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의 경우 오리역 역세권 유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역세권 부지를 이주 대책에 활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며 "이미 오리역 인근 개발 사업 안에 배후 수요를 고려한 주상복합 내용이 들어있고, 얼마나 물량이 가능할 지는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분담금과 공공기여 부분도 변수로 떠올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제안했지만 그만큼 사업성은 악화되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기 신도시들이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제정비 기준 용적률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 등이다. 일산이 다른 지역 대비 기준 용적률이 낮다.

국토부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 갈등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동의율을 가장 높게 본 것"이라며 "일부 갈등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국내은행, 3분기 건전성 개선 BIS 기준 자본비율 0.09%p ↑

(국제은행)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3% 상승 '위험가중자산 줄고 건조한 이익 시현'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가중자산 증가세가 둔화하고 건조한 이익 시현 등에 따라 자본이 늘어난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9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분기 말 대비 0.09%포인트(p) 상승했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해당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었다 의미다.

9월말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33%, 14.65%로 전분기 말 대비 0.15%p씩 오른 수치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경우 9월말 기준 6.79%로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은행은 보통주자본 8.0%, 기본자본 9.5%, 총자본 11.5%의 규제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모두 6월 말보다 상승하면서 규제 수준을 웃돌았다.

보통주자본비율은 DGB(+0.55%p)

와 하나(+0.37%p), KB(+0.25%p) 등 대부분의 은행이 전분기말 대비 상승한 반면, 카카오(-0.31%p)와 우리(-0.08%p), 농협(-0.06%p) 등 3개 은행은 하락했다.

은행지주별 총자본비율은 KB금융지주가 16.75%로 가장 높았고, NH농협금융지주 16.16%, 신한금융지주 15.85%, 우리금융지주 15.63%, 하나금융지주 15.42%가 뒤를 이었다.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8.64%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이 18.25%, 국민은행이 18.21%, 하나은행이 17.65%, 우리은행이 16.39% 순으로 높았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토스가 14% 이상이었고 KB·케이·하나·신한 등도 13%를 넘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DGB·하나·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전분기 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했지만, 카카오뱅크·우리·농협은행 등 3개 은행은 하락했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9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및 건조한 이익 시현 등에 따른 자본 증가로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다"며 "다만 최근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리스크에 대비한 자본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2024 SOLUND Startup-Oriented Universe with Numerous Dots

CKL스테이지 (12.5~12.6)

DAY 1 12. 5. THU OPENING U-CONNECT FINAL

DAY 2 12. 6. FRI 창업경진대회 결선 Start-up Networking

이미지 출처: NASA, ESA, CSA, STScI

KfIR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반도체 초격차 복원 초읽기... '배테랑 리더십' 승부수 던졌다

**삼성, 7명 사장단 위촉·업무재편 경쟁력 회복 위한 DS 부문 재정비 경영 전략 재정립, 미래 먹거리 발굴 해외 마케팅·온라인 비즈니스 강화**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앞둔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DS(반도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한다.

지난 5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구원투수로 영입한 전영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내정, 주력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전영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문에 이례적으로 사장 2명을 배치하고,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메모리사업부를 맡은 것이 눈에 띈다. 김용관 사장을 승진시켜 DS 부문 반도체 경영전략담당으로 앉힌 것도 의미심장한 인사라는 평이다. 27일 삼성전자는 2025년 정기인사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를 전영현 부회장이 직할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영현 부회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메모리 사업부를 이끌게 됐다.

삼성전자는 전 부회장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DS 부문 핵심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장과 삼성종합기술원(SAIT) 원장까지 맡겼다.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한 데는 전 부회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조직 분위기를 견

**2025년 삼성전자 신규 및 업무변경 사장단**

**DX부문**

- DX부문 및 DA사업부, 품질혁신위원장: **한중희** 대표 부회장
- 글로벌 마케팅실: **이원진** 사장
- 브랜드전략위원: **이영희** 사장

**DS부문**

- DS부문 및 메모리사업부·SAIT원장: **전영현** 대표 부회장
- 파운드리사업부: **한진만** 사장
-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최고기술책임자(CTO): **남석우** 사장
- DS부문 경영전략담당: **김용관** 사장

**사업지원TF 담당 사장**: **박학규** 사장

**미래사업기획단**: **고한승** 미래사업기획단장 사장

자료: 삼성전자 /뉴스스 그래픽

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령탑을 교체하고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보직을 신설했다.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한진만 미주총괄 부사장이 발탁됐다. 한 사장은 D램·플래시 설계팀을 거쳐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말 미주총괄로 부임해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CTO 사장에는 남석우 DS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배치했다. 남 사장은 반도체 공정개발 및 제조 전문가로 반도체연구소에서 메모리/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DS부문 제조&기술담당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공정 기술 확보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12년 만에 김용관 사업지원TF 부사장을 반도체 담당으로 불러들여 DS 부문 신설 보직인 경영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김 사장은 지난 2012년 DS부문 경영지원실 기획 팀장직을 끝으로 반도체 업무를 맡지 않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래전략실에서 임원을 맡았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 기기사업부장 및 삼성메디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12년 만에 반도체 업무에 복귀한 셈이다.

퇴임한 인사인 이원진 상담역도 다시 복귀시켰다. 이원진 상담역은 지난해 이미 일선 서 물러났지만 1년만에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사장은 과거 어도비 코리아 대표, 구글 북미 광고솔루션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이 사장은 마케팅·브랜드·온라인 비즈니스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창립 멤버인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고한승 사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진다. 미래사업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신설 조직이다. 고 사장은 삼성전자로 이동해 경계현 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이 맡았던 미래사업기획단을 이끌게 된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미 삼성전략기획실

신사업팀 담당임원과 삼성전자의 신사업팀 담당 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처럼 DS 부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기존의 배테랑 인사가 앉게 된 배경에는 '인재 부족'도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S 부문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장과 함께 메모리사업부장, SAIT 원장 등을 모두 맡은 것도 이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위기에 빠진 삼성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5일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하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임원 승진 규모는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연말 인사 앞당기고, 조직 슬림화... 글로벌 위기 대응 전략

**국내 기업, 불확실성 돌파구 현대차그룹, 첫 외국인 CEO 선임 LG, R&D 역량 강화·젊은 인재 발탁**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말 임원인사를 앞당기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0 시대 무역전쟁까지 예고되면서 경영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SK 그룹 등은 과거 연말에 진행했던 임원 인사를 앞당겨 내년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올 연말 대기업 인사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장 승진 2명, 위촉업무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보통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인사를 실

시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5일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도 그동안 연말 발표했던 임원인사를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긴 11월 15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처럼 인사를 앞당긴 건 글로벌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올해 인사에서 차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을 CEO로 선임하기도 했다. 바로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입지적인 인물인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선임 CEO로 선임했다. 여기에 트럼프 2.0 대응을 위해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현대차 고문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LG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중속 내실 다지기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 임원 21명을 포함한 그룹 R&D 임원은 21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여성 임원과 80년대생 임원도 크게 늘었다. 신규 임원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파악됐다. 이는 '도전적 목표'를 세워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한 구광모(썬) LG 대표의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코플랜트 등 SK 일부 계열사는 예년보다 두 달 이른 10월에 인사를 마쳤다. SK그룹은 12월 초 임원 인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리밸런싱(조직 개편)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돌입한 만큼 연말 인사에서 파격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219개의 계열사를 연말까지 10% 이상 줄이는 등 고강도 조직개편에 돌입한 만큼 임원 수는 20% 가량 감축할 가능성이 크다. /양성운 기자 ysw@

## 반도체 재도약... 정부, 14조 금융지원·세액공제 대폭 확대

**'반도체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첨단 기술 육성·클러스터 활성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 내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부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관

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중국의 추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관, 동박적층판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한다.

또 소부장·패시브·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

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당신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산관리

투자부터 법률, 세무, 부동산까지-  
당신을 중심으로 신한이 모든 역량을 모은  
특별한 자산관리, 신한 프리미어를 만나보세요

## 신한 Premier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 與野, 민생행보 박차... '정년연장' '고교 무상교육' 강조

한동훈, 격차해소특위 정책토론회  
"일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 충분"

이재명, 고교무상교육 현장간담회  
"학생복지 등 줄여야 하는 상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격차해소특위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당분간 사법리스크로 인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27일 각각 '정년연장'과 '고교 무상교육'을 화두로 민생 일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지난 한국노총 방문 시에도 한국노총으로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4대 요구를 제안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최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언터벙(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

민의힘은 이 문제(정년연장)를 구체적인 문제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에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뒤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부금법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총담하는 법으로 올해 말이면 일몰된다.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총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국고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교부금법 관련 입장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 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법 관련 예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일몰 연장안)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법사위, '與 후보 추천 제외' 상설특검 개정안 통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 시 대안  
내달 11일엔 검사 탄핵 청문회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7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 후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됐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소추 청문회 관련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스시스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

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제외요구권)을 행사했고 다음날 10일 본회의 때 재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단지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

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법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한편, 11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AI기본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됐고,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태홍 기자

## 尹, '李 무죄판결·與 당원계시판' 논란에도 묵묵부답

김건희 특검 거부권 때도 입장 없어  
민생 집중하자 긍정적 여론 늘어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이나 국민의힘 당원계시판 논란 등 정치 현안에서 한 발 물러나 민생과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외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지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 당시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최근 여당의 '뜨거운 감자'인 당원계시판 논란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특히 당원계시판 논란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

임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의 무대응 방침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이나 당원계시판 역시 정치적 갈등 요소가 강한 이슈이기에 말려들수록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세가 나타난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

다.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급반등했고,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주 만에 20%대 증반을 회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주 외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다. 지난 25일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또 오는 28일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라트비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극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통상·관세정책 영향을 점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련 국가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친숙성·편의성... 보험사, 세대별 맞춤 공략

삼성생명, 연남동에 팝업 스토어 MZ세대 친근한 보험 이미지 형성  
삼성화재도 '보이는 러닝' 캠페인 생·손보험, 고령자 조력제도 도입  
조력자 지정으로 해피콜 가능해져

보험업계가 세대별 맞춤형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젊은층에게는 접근성을 높여 보험의 친숙함을, 고령층에게는 보험 가입의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타깃을 전 연령대로 확장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보험형제(삼성생명·화재)'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M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서울시 연남동에서 '조선시대 건강원' 컨셉의 '비추미 건강원'을 운영했다. 해당 팝업스토어는 20~30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보험을 앞세운 단순 광고가 아닌 방문객을 위한 색다른 경험이란 측면에 집중한 점이 주요했다. 비추미 건강원은 조선시대 건강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이동한 것 같



책 지피티가 생성한 보험업계 연령대별 공략 방안 이미지.

은 경험을 선사해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었다.

또한 삼성생명의 캐릭터인 '비추미(해리, 달리, 별리)'를 곳곳에 배치해 방문객에게 친근한 보험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기존 보수적인 보험의 미지를 극복하고 거부감을 낮췄다는 평가다.

팝업스토어의 성과로 삼성생명은 2024 KAA 어워드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 보험사의 이색적인 팝업스토어를 통해 체험형으로 2030세대의 보험 관심도를 제고했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삼성화재도 지난달 러닝을 소재로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선보여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보이는 러닝' 오프라인 캠페인은 ▲러닝 프로그램 ▲러닝 팝업 전시회 등으로 구성했다.

MZ세대를 위해 인기 '시티런' 장소인 경복궁 둘레길에서 러닝 스냅사진도 찍어주고 러닝 코스를 완주하면 러닝 굿즈도 제공했다. 러닝 팝업 전시회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인터뷰, 러닝 코스 추천, 러닝 용품 정보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2030 러닝족을 타깃으

로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삼성화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고령층 공략 방안으로 업계는 보험 가입 편의성을 개선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달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으로 고령자의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안전판매 확인 절차)이 가능해졌다.

기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고령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가 음성통화 등을 통해 해피콜을 최초로 실시하기 전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수 있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했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했다"며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카드 News

### KB국민카드-유니온페이 중 비자면제 발맞춰 글로벌 마케팅 협력

KB국민카드는 27일 'KB국민카드-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강화 ▲한·중 소비자 맞춤형 결제 솔루션 제공 ▲관광 및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의 마케팅 협력이 골자다.

중국의 비자 면제 확대에 발맞춰, 공동 마케팅을 단행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양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롯데카드 초개인화·가독성 초점 디지로카 앱 전면개편

롯데카드가 초개인화에 초점을 맞춰 자사 앱을 강화했다.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앱의 사용자 환경(UI)과 사용자 경험(UX)을 전면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과의 양방향 상호 작용이 핵심이다. 소비자의 행동에 실시간으로 반응해 각 탭의 최상단에서 맞춤형 메시지를 소개한다. '가독성'을 방점에 두고 앱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홈▲카드▲발견▲탐색 등 4가지 탭으로 구성했다. 앱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콘텐츠와 상품, 혜택 등을 추천한다. 이 밖에도 예정금액과 이용대금명세서 등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정보도 제공한다.

### 현대카드 3040 결제유행 반영 이마트e카드 2종 선보

현대카드는 27일 '이마트e카드 플러스'와 '이마트e카드 베이직' 등 2종을 공개했다.

이번 상품은 병원, 학원 등 가족 중심의 소비가 늘어난 3040의 결제 유행을 반영했다. 일상 업종에서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세계포인트는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50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e카드 플러스는 일상 영역 이용 시 5%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처는 이마트 7대 가맹점과 온라인몰,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 입시·보습·예체능학원 등이다. 이어 '이마트e카드 베이직'은 해당 영역에서 결제 금액의 1.5%를 적립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청약 경쟁률 최고 1784대 1

## 지하철 2·5호선 더블 역세권에 2~3인 공략 소형위주 평형 인기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1784대 1을 기록했다. 견본주택도 열지 않고 사이버 전시관만 운영했음에도 3만명 가까이 몰렸다. 영등포구청역과 당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에 2~3인을 공략한 소형 위주의 평형도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40대 1로 집계됐다. 57세대 모집에 1만9404명이 접수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1784대 1이다.

앞서 특별공급 청약경쟁률 역시 192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대 1에 달했다. 54세대 모집에 1만403명이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상 25층, 8개 동, 전용 44~84㎡로 총 550가구 규모다.

일단 입지가 좋다. 지하철 2·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이 도보권에 위

치한다. 또 지하철 2·9호선 당산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이 같은 청약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며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견본주택

개관 이후에도 상품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단지는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에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전용 59㎡A 타입 제외)을 더한 구조를 도입해 신혼부부 및 2~3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여기에 파우더룸 화장대와 드레스룸 선반, 냉장고장, 세대별 개별 창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대단지 수준의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들어서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급 아파트에 주로 도입되는 스카이라운지가 구성되며, 사우나와 프라이빗 오피스룸 등 특화 시설은 물론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피트니스, GX룸, 스티디 라운지 등도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3일이다. 입주 는 오는 2028년 3월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하나銀 '아이부자 앱' 결제서비스 강화

체험형 금융 플랫폼 리뉴얼 서비스

하나은행이 알파세대를 위한 체험형 금융플랫폼 '아이부자 앱'을 새단장 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앱 '아이부자'는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이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녀 회원은 '아이부자 앱'을 통해 용돈을 받을 수 있고, '모으고·쓰고·불리고·나누는'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며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아이부자 앱

에서는 'QR·바코드 결제', '온라인 직접결제'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기존 '아이부자 충전형 선불카드'가 큰 호응을 얻어왔던 만큼 손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아이부자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녀회원이 재학 중인 학교의 급식표, 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퀴즈 풀기 ▲겉기 챌린지 ▲습관 챌린지 등 참여형 리워드 활동을 추가했다. /나유리 기자

## 신한銀, 데이터 기반사업 경쟁력 강화

신한카드·롯데백·롯데닷컴과 상호발전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Data) 기반 사업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Data 기반 사업경쟁력 제고 ▲외국인 특화 솔루션 발굴 ▲국

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사가 보유한 데이터, 서비스, 채널 등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기반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종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경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년새 철근 수요 17% '뚝' 철강사, 생산량 조절 나서

지난 9월 내수판매 591만t 집계  
내년 하반기에나 수요 회복 전망  
“생산율 조정 통해 시장 개선 기대”

건설 현장에 쓰이는 철근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수요 감소폭이 워낙 커 철근 가격 급락을 면치 못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누적 철근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7.2% 급감한 571만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4월, 6월을 제외하면 매월 70만톤을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요인으로는 아파트 신규분양, 건축 착공 등과 같은 국내 건설 지표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악화된 점이 꼽힌다.

내수 부진으로 국내 제강사들은 철근 감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누적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한 591만톤에 그쳤다. 업계는 연말까지도 철근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간 생산량이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인 771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수요 부진에 따른 감산 여파로 고철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톤당 42만원을 기록했던 국내 고철가격은 11월 중순 기준 38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철근 유통 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유통 마진을 역시 더욱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중국 내 철근 생산량도 4분기 들어 크게 늘어나 철근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0월 17~23일 중국 내에서 생산된 철근은 총 251만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주간 기준 올해 최대치다. 중국이 최근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및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철근 생산량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아 또 다른 공급과잉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지난 9월 말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했다.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 중국 철강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양책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철근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했으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내 철강사는 철근 가격이 원가를 밑돌자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유통업체에 전달하는 자구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은 가격 인상을 철저히 하고 있다.

다만 내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 및 분양이 점차 회복세를 보여 철근 내수 판매가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철근 내수 판매는 장기적으로 내년이 바닥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며 “철근 생산업체들의 생산을 조정해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LG전자, 차량용 MCU ‘ISO 26262’ 인증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규격)

기능 안전·신뢰성 인정 받아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차량용 고성능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이 세계 시장에서 기능 안전 및 신뢰성을 인정 받았다. LG전자는 CTO부문 SoC 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가전과 스마트 TV에 사용하는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시스템반도체 개발 역량을 입증하며 AI반도체 설계·개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차량용 MCU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26262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규격으로,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전자 장치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 안전 및 신뢰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인증을 부여한다.

LG전자는 앞서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한 차량용 고성능 MCU 제품도 기능 안전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번에 국제 안전표준 인증을 획득한 MCU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첫 차량용 반도체로, 인포테인먼트에 적용돼 AVN(Audio·Video·Navigation)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내 통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국제 안전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 CTO부문 김진경 SoC센터장(왼쪽)이 TUV 라인란드 코리아 프랭크 주트너(Frank Juettner)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LG전자

신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TUV 라인란드 코리아 프랭크 주트너(Frank Juettner) 대표는 “LG전자는 성공적으로 구축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히 검증된 글로벌 스탠다드 반도체 칩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영역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SoC센터장은 “LG전자의 전장부품과 자율주행 기술, 콘텐츠 서비스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와 설계 역량을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현대차, 인니 전기차 생태계 구축 앞장

현지 충전 구독 서비스 개시  
“인프라 확장 통해 생태계 기여”

현대자동차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2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는 현대차의 카 라이프 앱 ‘마이현대 인도네시아’에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 가입 고객은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 제휴 업체와 현대차가 운영하는 288개 EV 충전소의 518개 EV 충전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인도네시아 현대차 EV 충전소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충전하고 있다.

과 충전 필요량에 맞춰 충전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는 50kWh, 100kWh, 250kWh 세 가지 충전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정된 충전 용량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가 결제를 통해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다.

올해 9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은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 이용 시 1년간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카드 보급이 낮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 제휴 업체를 늘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주현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장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는 아직 형성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구독 서비스와 같은 혁신 서비스와 EV 충전 인프라 확장을 통해 인니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IG넥스원은 26일 구미하우스에서 대형수조 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익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

## LIG넥스원, 5400t 규모 수조 시험장 준공

소나체계 해외수출 박차

LIG넥스원이 해군 전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표와 함께 향상된 소나체계 시험 시설과 지체 없는 양산능력 확보를 위해 대형수조 시험장을 준공했다.

LIG넥스원은 26일 구미하우스에서 신익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구미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주요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수조 시험장 준공식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준공한 대형수조는 약 5400t의 충수량을 자랑하며, 각종 첨단 시험장비를 구비해 소나체계의 핵심인 수중음향센서 개발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지난해 투자 결정이 이뤄져 올해 구축을 완료했다. 소나체계의 해외수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보다 일부 시설과 설비의 사양을 증설했다.

고주파는 물론 무게고 부피가 큰 저주파 대역 수중음향센서 개발까지 고려해 건물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고, 40t급 크레인을 설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음향센서 개발과 성능 검증, 양산까지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LIG넥스원은 2009년 장보고-III 선측배열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구축함(KDDX) 예인소나 송수신장비시제 등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소나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소나체계는 수중 음향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적 위협을 탐지, 추적하고 표적을 식별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우리 군의 수중 작전능력 향상 및 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에 이바지한다.

조성일 LIG넥스원 해양연구소장은 “원거리의 위협 세력을 탐지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소나체계를 안정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려면 성능 검증을 위한 대형수조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대형수조 시험장 구축이 대양해군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효성중공업, 차단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ESS 등 전력 솔루션 제품 생산 확대”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차단기 누적 생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중전기 업체 중 최초 기록이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6일 창원공장에서 ‘차단기 생산 1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단기는 송전선로, 변전소 등에서 고장 또는 이상 전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류를 차단해 전력 기기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

는 전력기기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977년 첫 차단기 생산을 시작한 이래 1997년 차단기 누적 생산액 1조원을 넘어섰고, 2013년에 5조원, 올해 10조원을 돌파했다.

회사는 지난 50여년간 전력송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국내 초고압 송·변전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세계 40여개국에 차단기를 공급하며 글로벌 주요 차단기 브랜드로 자리잡은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인도

푸네 차단기 공장 본격 가동으로 해외 공략에 속도를 더했다. 중동과 북미시장을 비롯 최근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유럽시장에 대규모 GIS를 공급했고, 특히 올해 아이슬란드 국영 전력회사와 유럽 GIS 단일 공급 최대 실적인 220억원 규모 차단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차단기, 변압기 등 핵심 전력기기 외에 ESS(에너지저장 시스템), HVDC(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 등 미래 전력 솔루션 제품 생산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탑티어 전력기기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 “시로 맞춤형선곡·음질까지 최적화” 韓 음원플랫폼, 글로벌 공세 ‘반격’

스포티파이 도전에 정면 대응  
FLO, LLM 활용·AI기반 음악 추천  
멜론, 음질 개선·사용자 경험 강화  
지니뮤직, 리메이크 플랫폼 ‘리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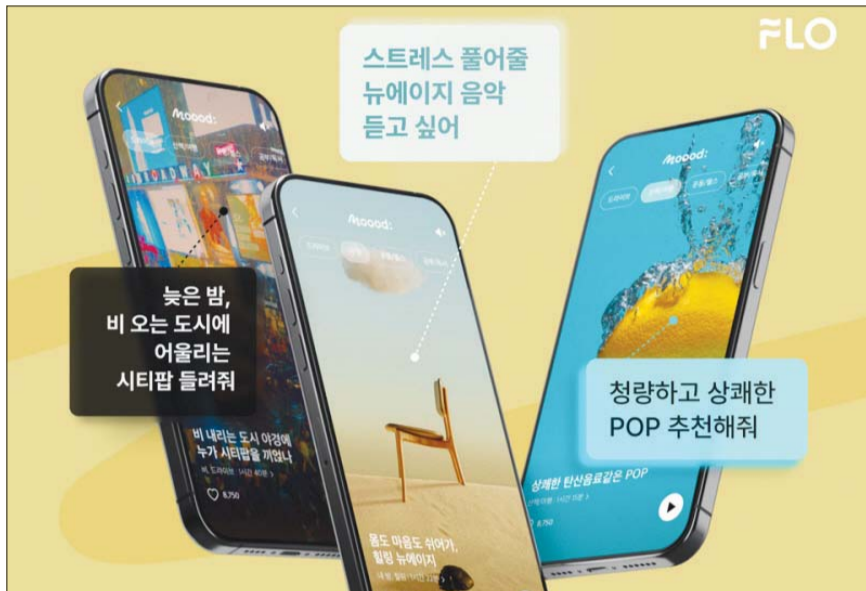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앞세워 글로벌 음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스포티파이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 판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멜론과 플로 등 국내 플랫폼들은 AI 기반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지난달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인 ‘스포티파이 프리’를 한국에 출시했다. 사용자는 30분 주기로 오디오 광고를 듣는 대신 개인 맞춤형 플레이리스트와 팟캐스트 등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 후 스포티파이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자 수는 급증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전월 대비 198% 증가한 109만 명에 달했다. 또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도 역대 최대치인 262만 명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국내 플랫폼들의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지난달 국내 음원 플랫폼 사용자 순위에서 유튜브 뮤직은 754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멜론(706만 명), KT의 지니뮤직(291만 명)이 뒤를 이었다. 4위를 기록한 플로(217만 명)는 스포티파이(127만 명)와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들은 AI 기술을



SK스퀘어 관계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운영하는 음악 플랫폼 ‘플로’(FLO)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어스컴퍼니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SK스퀘어 관계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플로(FLO)는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큐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플로는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음악 추천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곡들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2000년대 해외 팝 들려줘”와 같은 검색어에 AI가 최적의 곡들을 추천하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오디오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해 자연어 기반의 검색과 플레이리스트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 기술이 적용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은 AI를 활용해 음질 개선과 사용자 경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믹스업’ 서비스는 한 곡을 선택하면 유사한 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추천해 10~20대 이용자 비중이 40%에 이를 정도로 젊은 세대에

분석해 최적 음향효과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EQ AI 마스터’와 음량 일관성을 유지하는 ‘음량 최적화’ 기술도 탑재해 고품질 음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명반 큐레이션 서비스 ‘에디션M’과 틱톡 연동 저장 기능 등으로 서비스 확장을 꾀하고 있다. 에디션M은 국내 대표 음악 평론가들이 대중음악 역사를 대표하는 명반과 장르별 명곡을 소개하는 서비스다.

KT의 계열사인 지니뮤직은 AI를 접목한 음악 큐레이션을 선도하고 있다. ‘빠른 선곡’ 서비스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곡 추천 기능으로 호응을 얻으며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수가 두 자릿수 성장했다. 또 AI 기반 음악 리메이크 플랫폼 ‘리라’를 선보이며 편곡·믹싱 작업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리라는 웹 환경에서 디지털 악보를 즉석에서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윈스톱 작업 도구로, 창작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K-뷰티 수출 호조에도 中企 고용·창업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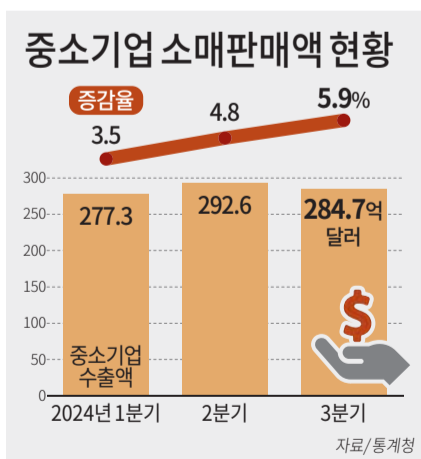
중소기업 3분기 수출 5.9% 증가  
취업자 수 전년 대비 2.3만명 줄어  
기술기반 창업 1.4만개, 전년비 6.4% ↓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이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 생산 활동과 고용, 창업 등은 모두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KOSI 중소기업 동향’ 2024년 1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중소기업 생산이 -5.3%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조업일수 감소(-1일)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전자부품’ 등 주요 업종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소서비스업 생산(-1.3%)도 감소했다. 민간소비 부진, 명절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면서 하락했다.



지난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84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다. ‘화장품(+26.7%)’, ‘반도체 제조장비(+28.6%)’, ‘자동차(+24.3%)’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세와 주력시장 ‘미국(+8.8%)’의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효했다.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4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3000명 줄며 감소 기조로 전환됐다. 규모

별로는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00명 감소했다. ‘5~299인 업체’는 2만 2000명 줄며 감소 전환했다.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1만 7000명)’, ‘임시근로자(+7만 4000명)’는 증가폭이 둔화했고, ‘일용근로자(-10만 1000명)’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 9월 창업기업 수는 8만 2631개로 ‘제조업(-13.7%)’, ‘건설업(-4.8%)’, ‘서비스업(-10.9%)’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줄며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지식기반서비스업(-4.9%)’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1만 4793개를 기록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 시행과 기술창업을 장려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LG화학, 친환경 패키징 기술로 ‘대통령상’

단일 소재로 강도·투명성 구현

LG화학이 친환경 플라스틱 패키징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화학은 친환경 플라스틱 패키징을 위한 자사 기술이 2024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기술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 시상식이다.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LG화학이 개발한 ‘이축연신 폴리에틸렌(Biaxially Oriented Polyethylene, BOPE)’은 고분자의 결정 구조부터 새롭게 설계해 단일 소재임에도 높은 강도와 투명성을 가진다. 이를 패키징에 활용할 경우 재활용도 쉽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름 포장재는 내용물 보호를 위한 강도 확보를 위해 폴리에틸렌과 나일론 등 여러 플라스틱을 섞어 사용했다. 이에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워 분리수거 되더라도 대부분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LG화학이 개발한 BOPE는 리필용 세제, 내용물이 투명하게 보이는 팻푸드(Pet food) 파우치 등에 친환경 패키징 용도로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패키징 소재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LG화학 최이영 연구위원은 “투명하면서도 질기고 환경에도 좋은 패키징 재료를 찾고 있다는 고객의 목소리가 연구의 발단이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과 재활용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국내 최대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 구축 박차

대한전선, 투자자 대상 IR행사 진행

대한전선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전선은 지난 26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케이블공장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진행된 IR행사로, 3분기 경영 성과와 주요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생산 거점인 충남 당진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케이블공장에서 VCV(수직연속압출시스템) 타워 등 HVDC(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설비를 둘러본 후, 해저케이블 1공장을 방문해 지난 6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1단계 설비를 확인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해저케이블 2공장 2단계 건설 현장과 해저케이블 2공장 부지도 둘러보며 대한전선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대한전선은 케이블공장, 해저케이블 1, 2공장 등 모든 생산 설비를 충남 당진에 집중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지난 26일 대한전선 IR행사 참석자들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한전선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점유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대한전선은 3분기에 기록한 역대급 경영 성과도 공개했다.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가 확대되면서 3분기에만 9700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 3분기 말 기준으로 2조 3257억원 규모의 누적 수주 잔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8400억 규모의 신규 수주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수주 잔고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업설명회 자료는 대한전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일반 투자자와 미참석 관계자들도 확인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 KT 비즈메카EZ, 메일 보안 서비스 강화

AI위협메일 차단서비스 출시

KT가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인 ‘비즈메카EZ’에 메일 보안서비스 ‘AI위협메일 차단서비스’를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즈메카EZ는 중소기업 업무에 최적화된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KT는 비즈메카EZ에 최신 AI 기술을 적용해 최첨단 AX(AI Transformation)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AI위협메일차단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출시했다.

AI위협메일 차단서비스는 KT의 빅데이터 기반 AI기술로 외부 악성 이메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KT가 자체 보유한 AI 분석탐지 모델이 적용되어 낱말이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신종/변종 메일 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비즈메카EZ 메일서비스 이용고객은 도메인 변경, IP변경, 초기세팅, 장비설치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한 신청만으로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 줄이고 MTS 투자 서비스·콘텐츠 강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증권사 20개社 영업점 수 724곳  
2022년 3월 비해 14.72% 줄어

신영증권, MTS '그린' 개편  
키움·토스증권, 지점 없어도 호실적  
NH·신한투자증권, 오프라인 지점  
고객 자산가 자산관리 중점 운영

증권사들이 오프라인 지점 수를 줄이고, 거점·대형화에 나서면서 고객자산가 대응 위주로 영업방식을 탈바꿈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영업점은 지점별 특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0곳 이상 국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 20곳의 영업점 수는 2022년 3월 849곳에서 724곳으로 14.72%(125곳) 감소했다. 2022년 9월 기준 838곳에서, 2023년 9월 778곳, 올해 9월 기준 713곳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분석 대상 증권사들의 임직원 수는 3.59%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점 통·폐합 움직임이 인력 조정 문제보다는 서비스 중심을 옮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디지털 발전 등으로 투자자들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 영업보다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채우고자 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휴대전화로도 폭 넓은 투자 활동이 가능한 만큼 시니어층도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 지점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구조조정보다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적용을 위한 업무가 강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MTS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증권사 이미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신영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그린(green)'을 개편했다. 고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MTS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투자 콘텐츠도 다양화시켰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이번 MTS 개편은 신영증권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고객들의 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리핏 2.0에 이은 디지털 솔루션 강화 시리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점 수 10곳을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 중 하나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지점에서 받을 수 있던 서비스 영역을 온라인에도 접목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MTS를 개편·개선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연달아 오픈시키고 있다.

리테일 강자로 불리는 키움증권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토스증권 등은 지점이 전무하지만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3분기 기준 키움증권의 누적 영업이익은 918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

다 10.3% 늘었으며, 토스증권 역시 해외 거래 부문에서 약진하며 3분기 총 매출액 119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17.9%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지점을 고객 자산가 자산관리(WM) 서비스 중점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점을 통합해 거점 지점·특화 지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반포WM센터와 방배WM센터를 '반포금융센터'로 통합해 오픈했으며, KB증권도 지난달 연신내라운지, 광화문금융센터를 합쳐 거점 점포를 대형화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사옥을 사학연금타워(TP타워)로 이사하면서 영업부를 제일 고층인 41층으로 올렸다. 접근성보다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은행 업무와 증권 투자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점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은행권 자산가들의 방문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층에서 누리는 여의도 전경과 함께 프라이빗한 자산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현대차증권, 2000억 규모 유상증자 단행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

현대차증권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가 배정되며, 신주 3012만482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예정 발행금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6640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도 전체 발행 물량의 10%인 301만 2048주를 배정했으며,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구주주 대상 청약일은 25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미청약 잔여 주식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한다. 최종 발행가는 25년 2월 7일에 확정된다.

계열사 주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25.43%, 현대모비스가 15.71%, 기아가 4.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현대차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에 배정받은 물량의 100%를 청약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아 및 현대모비스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리테일 및 기업금융(IB)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이번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증권이 증권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코스닥협회가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우량기업을 제16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스닥협회

## 클래시스, '코스닥대상'서 국무총리상 수상

70여개국서 K-뷰티 선도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인 클래시스가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코스닥협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우량기업을 제16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코스닥대상은 2022년부터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돼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경영 실적, 시장공헌도, 기술개발, ESG경영, 일자리 창출 활동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업실사를 통한 최

고경영자(CEO) 인터뷰 등 정성적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은 클래시스가 차지했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및 개인용 뷰티디바이스 화장품 사업을 전문 분야로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미용 의료 대중화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는 "국무총리상 수상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 영역을 커버하는 '세계 최고의 미용의료 플랫폼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원관희 기자

## 韓 증시 회복은 언제?... 내년 2분기 vs 연말

연말 국내 증시, 11·12월 상승세 경향  
올해는 트럼프 2기로 약세장 전망  
美 증시 강세 영향으로 반등 가능성도

미국 주요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연말 '산타렐리'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에 발맞춰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최근 한 달간 7.41% 상승했다.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도 각각 5.97%, 5.54%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43%, -2.0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연말 국내 증시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코스피는 10월 하락 후 11월과 12월 배당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리밸런싱 수급보다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라며 "12월은 홍보장세가 예상된다. 반등이 있더라도 기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 1분기에 경기 둔화 우려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스피는 4분기 실적 부진, 트럼프 취임 불확실성, 공매도 재개 우려 등의 영향

으로 1분기 중반까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점진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 강세의 영향을 받아 국내 증시도 연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고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미국 채권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계절적 요인이 결합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와 달러화 안정화,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으로 아마존 등 주요 소비주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텍스트로 오디오 출력... 엔비디아, AI 주도권 확보 속도전

## 생성형 AI 모델 '푸가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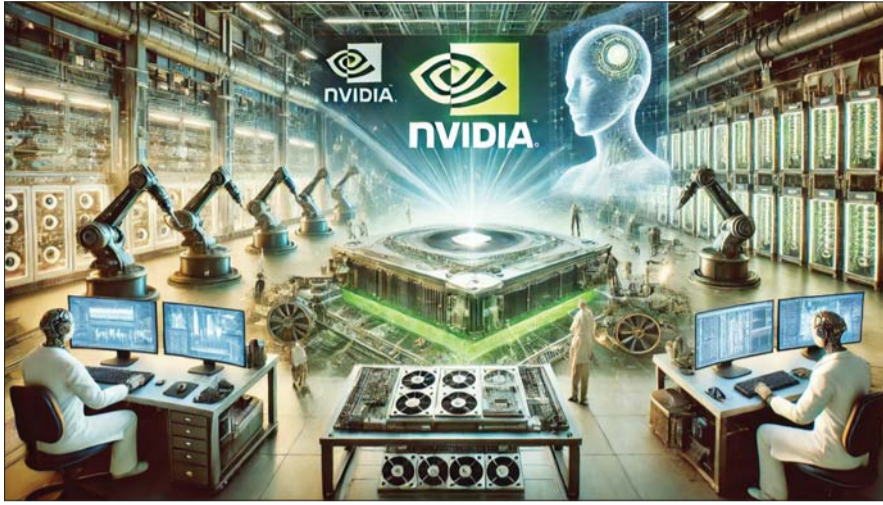
텍스트·오디오 파일 함께 학습  
사운드의 모든 조합 생성·변형

업계 "탄탄한 인프라·자본 등에  
엔비디아 AISW 개발 시너지 기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발을 넓힌다. 막대한 자본과 세계적인 인재를 뺏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엔비디아가 AI 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텍스트만으로 오디오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 '푸가토(Fugatto, Foundational Generative Audio Transformer Opus 1)'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푸가토는 텍스트와 오디오 파일을 함께 학습해 명령어로 설명한 음악, 음성



Chat GPT가 생성한 엔비디아 관련 이미지.

(가사 등), 사운드의 모든 조합을 생성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다양한 오디오 생성과 변형 작업을 지원하는 푸가토는 여러 훈련된 능력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창발성(emergent property)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초 생성형 AI 모델이다. 창발성은 물리학 등에서 전체 시

스템에서 나타난 특성이 예상한 각개별 조합을 뛰어넘는 현상을 뜻한다.

푸가토는 연구팀이 음성 모델링, 오디오 보코딩, 오디오 이해와 같은 분야에서 쌓아온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 생성형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정식 버전은 25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

용하며, 32개의 엔비디아 H100 텐서 코어(Tensor Core) GPU가 탑재된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통해 훈련됐다.

라파엘 발레 엔비디아 응용오디오 연구팀 관리자는 "푸가토는 데이터와 모델 규모에 따라 오디오 합성과 변형에서 비지도 멀티태스킹 학습이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연이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IT 업계는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두고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라며 "자사가 사실상 독점 중인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 하는 건 당연히 개발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탄한 인프라와 배경 속에서 확보한 막대한 자본을 인재 확보와 개발에 투입한다면 당연히 최상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AI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급속한 지형 변화를 고려할 때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메기효과(Catfish Effect)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업계는 매일 급속히 인기 소프트웨어가 바뀌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엔더슨 호로위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4개월 전인 2023년 9월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50위 중 40%가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됐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생성형 AI와 결합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AI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스마트폰 시장 변화와 비슷해 이제 혁신 SW 등장과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K-음료, 글로벌 입맛 맞춘 상품개발 필요"

삼일PwC, 'Zero or More' 보고서  
전체 식품제조업 중, 음료 12.5%  
5년간 시장규모 연평균 5.5% 성장

K-음료가 K-푸드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입맛에 맞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음료, Zero or More'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음료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내 음료 업계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음료류는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료 제조업은 2023년 생산액 기준 전체 식품 제조업의 약 1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류 시장 규모는 2018년 이후 5년간 5.5%의 연평균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하며, 2023년 11조 536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건강·기능성 음료 시장이 확대되고 배달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성장하며 2021년 전년대비 성장률 11.6%를 기록한 후, 7%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음료 산업의 트렌드를 '3무 3유'로 요약했다. 3무(無)는 ▲제로칼로리 ▲디카페인 ▲무알코올 주류를, 3유(有)는 ▲기능성 및 고급화 ▲채널 및 제품의 다양화·세분화 ▲친환경을 뜻한다.

눈에 띄는 국내시장의 변화로는 기능성 음료 시장의 두드러지는 성장세와 일부 커피 수종의 차(茶)로 이동 등이 언급됐다. 기능성 음료의 경우, 2020년 12월 일반식품기능성표시제 시행 이후 각종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릴랙스 드

링크, 다이어트 음료, 단백질 음료 등이 대거 출시됐다. 일반식품기능성표시제란 일반 식품이 과학적 근거를 보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29종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을 때 표시하는 제도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수요 및 여유와 힐링을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며 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즉석음료(Ready-To-Drink, RTD) 형태의 홍차 제품, 우유와 조합된 제품, 주류에 섞어 마시는 제품 등 여러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정낙열 삼일PwC 소비재산업 리더(파트너)는 "국내 음료 시장이 웰니스와 기능성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음료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음료 시장도 글로벌 트렌드 및 취향에 맞춘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HS효성첨단소재가 27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HS효성 이주환 상무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S효성

## HS효성첨단소재, 6년 연속 '사회공헌 기업'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공로 인정받아

HS효성첨단소재가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정제로,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는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 G(투명경영) 3개 영역 중 7개 분야 2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는 영락에니아의 집 후원 및 봉사활동, 마포구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나눔, 장애 어린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지원,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7월 1일 HS효성그룹 출범과 함께 '가치 또 가치'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위치 확정

내달 중순 시작... 내년 상반기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1차 탐사 시추 위치가 최종 확정됐다. 시추 작업은 내달 중순 시작돼 2개월이 소요되고, 탐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기재부,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SK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등이 참석했다.

우선 1차공 시추 위치는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01광구북부(대왕고래 구조)'로 최종 확정됐다. 해당 위치



안덕근 장관

는 지난 9월 국내 자원 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한 곳이다.

석유공사는 이달 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고, 지난 13일 개최된 해저 광물자원개발심의회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KCC 세라믹·도로 제품 16년째 '세계일류상품'

응용소재 화학기업 KCC는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과 선박용 예폭시 방청 도료인 'EH2350 시리즈' 제품이 16년 연속으로, 선박용 방오 도료 'Egis 시리즈'는 14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할 대표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부여하는 공식 인증이다.

올해로 16년 연속 선정된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은 전류의 정상부하 개폐 및 전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로를 분리하는 진공 차단기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로, KCC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KT, 벤처·스타트업 지원 성과 공유

'퓨처웨이브 데이' 행사 개최

KT는 벤처·스타트업과의 성과를 공유하는 '퓨처웨이브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올해부터 AICT(AI+ICT·인공지능+정보통신)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KT 퓨처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스타트업 발굴·육성 거점센터인 '퓨처웨이브랩'을 비롯해 스타트업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퓨처웨이브 비즈', 유망벤처와의 글로벌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

인 '퓨처웨이브 고'와 스타트업의 정보 공유 플랫폼인 '퓨처웨이브 플랫폼'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에 맞춰 지원한다.

전날 행사에서는 판교 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IR 데이'도 함께 열렸다.

또 창업 도약 패키지, 비즈 컬래버레이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등 KT 사업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중 베슬에이아이, 비전스페이스, 모바힐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KT와의 협업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일상적인 재료로 미술랭 요리, 고급 레시피로 다이닝 선사”

**인터뷰**  
롯데웰푸드 푸드기술영업지원팀 박상준 셰프

10년 경력 바탕, 다양한 요리 개발 소비자 맞춤형 간편식 등 제품 강화 HMR 제품 활용 간편식 시장 공략 요리식으로 간단한 일품 요리 제공

최근 넷플릭스 요리 경연 시리즈 ‘흑백요리사’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이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롯데웰푸드는 일찍이 자사 제품들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레스토랑 못지않은 고급 메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푸드 기술영업지원팀을 운영해왔다.

〈메트로경제신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롯데웰푸드 박상준 푸드기술영업지원팀 FA담당 책임(셰프)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박상준 책임은 고객사 초청 쿠킹 시연회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활용한 메뉴 제안, 영업사원을 상대로 실습 교육 진행, 신제품 홍보 등 기술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며 롯데웰푸드 제품이 고객에게 보다 친숙하게



박상준 롯데웰푸드 푸드기술영업지원팀 셰프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웰푸드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 최고의 요리 명문 학교 ‘알마 국제요리학교’를 졸업한 박 책임은 롯데웰푸드 입사 전 이탈리아 미술랭 레스토랑과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1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다.

레스토랑 오너 셰프로 일할 당시에는 이탈리아 본토 맛을 살려 식재료의 맛

을 극대화하고 고객에게 현지에 온듯한 경험을 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호불호 없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선으로 하며 한식, 양식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박상준 책임은 “자사 제품을 알리기 위한 레시피와 메뉴를 개발하기 때문에 롯데웰푸드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쉽게 맛을 구현할 수 있는 레시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고객사에 제안해서 채택된 메뉴를 말씀드리자면, ‘직꾸닭’을 활용한 ‘직꾸닭 떡볶이’와 ‘직꾸닭 토마토 그라탕’ ‘직꾸닭 리조또’가 있다. 학교급식 세미나에서 메뉴가 채택되었고, 덕분에 기존 B2C용 제품이 B2B용 대량 제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품을 개발하는 R&D 팀은 아니지만, 제품 활용을 다양하게 하려 보니 해당 팀과도 협업하는 일도 많다.

박 책임은 “요즘은 HMR 제품이 워낙 잘나오다 보니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맛이 상향평준화되면서 같은 가격이면 식당에서 한 가지 요리를 즐기기 보다 집에서 많은 가지수의 요리를 먹는 것을 택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5월 요리소스 가정간편식 브랜드 ‘요리릭’을 리뉴얼했다. 요리릭은 셰프의 특별한 비법이라는 의미로 ‘10분 요리’와 ‘1분 요리’로 일품요리를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마트 매대에 제품 활용 영상이 짧게 나오기도 하며, 제품에 삽입된 QR을 찍으면 레시피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음성 지원에도 박상준 책임이 참여했다.

박 책임은 “고물가 시대에 신선식품을 비롯해 모든 식자재 비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셰프 경력을 살려 가공식품도 얼마든지 훌륭한 요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다. 제품들이 다이닝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메뉴로 개발해서 재조명받게 하는 게 저의 일이고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 HD현대, 최신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해군에 인도

美·폴란드 등 7개국 정부 관계자 참석 방위사업청과 협업으로 성공적 인도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HD현대중공업은 27일 울산 본사에서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Batch-II) 1번함인 정조대왕함의 인도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방산 수출과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미국, 칠레, 폴란드, 페루 등 총 7개국 20여 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조대왕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국내 4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27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영빈관에서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인계인수서에 서명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다. 최신 이지스전투체계·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탄도탄약격류도탄 등이 탑재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뿐

아니라 요격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 정조대왕함은 2019년 방위사업청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2022년 7월 28일 진수식을 가졌다. 이후 최대속력 평가 등 약 550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해군에 작기 인도됐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갖춘 정조대왕함을 방사청·해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팀코리아·팀십’을 기반으로 K-방산 수출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내년 정조대왕급 2번함의 진수식을 앞두고 막바지 공정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월에는 3번함 건조에 착수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엔씨소프트 리니지2M 5주년 이벤트 신규 클래스·콘텐츠 공개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이 5주년 기념 ‘마이크로니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리니지2M 이용자는 플레이하는 월드에 따라 다양한 업데이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기존 서버와 파푸리온, 린드비오르 서버가 포함된 ‘오리진 월드’에는 ▲신규 종족 카마엘 ▲신규 클래스 ‘소울 브레이커’ ▲연합 단위의 점령전 콘텐츠 ‘하이페리온 성지’가 추가된다.

‘소울 브레이커’는 적의 영혼을 획득해 사용하는 콘셉트의 클래스다. 획득한 영혼을 해방하면 능력이 대폭 증가하고 공격에 광역 피해 효과가 부여된다. 일부 스킬은 해방 상태에서 사용 시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덴, 엘모아덴 서버로 구성된 ‘리저브 월드’에서는 ▲오렌 지역의 신규 사냥터 ‘포자 지역’과 ‘상야탑’ ▲이교도의 카타콤: 혈맹전 ▲신규 클래스 ‘창’과 무료 클래스 체인지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5주년을 맞이해 모든 이용자에게 ‘인터루드 쿠폰’을 선물로 제공한다. 인터루드 쿠폰은 사용 시 강화에 실패한 아이템을 복구하고, 도전했던 최고 등급의 변신·마법인형 합성에 재도전할 수 있다. 오리진 월드의 기존 서버에서는 ‘TJ’s 마스터 쿠폰·초월 신화 아가시온’도 새롭게 선보인다.

리니지2M은 12월에 참여만 해도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대규모 집결 레이드 ‘파푸리온 백어택’을 진행한다. 오리진 월드와 리저브 월드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식품업계 첫 SBTi ‘넷제로’ 목표 승인

롯데칠성음료, 혁신적 감축 전략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SBTi(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 목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해 9개 기업이 SBTi 기준에 따라 넷제로 목표를 승인 받았다. 특히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최초로 산림(Forest), 토지(Land) 및 농업(Agriculture) 부문에 대한 FLAG 배출 목표를 승인 받은 점이 특징이다.

SBTi는 기후 과학에 기반한 관련 지

침과 방법론을 제공하여 기업이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행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로 지난 201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절대량 감축 방식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 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0.4% 수준으로 감축하고, 오는 2040년까지는 100% 감축해 탄소 배출을 제로화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아우디, 정비·수리 체험 프로그램 진행

‘서비스 익스피리언스’ 개최

아우디 코리아가 차량의 정비 및 수리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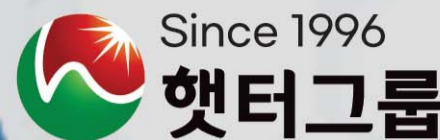
아우디 코리아는 오는 12월 21일 아우디 부산 금정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우디의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024 아우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우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문 테크니션과 함께 차량의 정비 및 수리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우디

만의 체계적이고 고유한 수리 과정과 원칙을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2024 아우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는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 아우디 금정 서비스센터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서비스센터 투어를 포함해, 수리 및 정비 교육, 전기차 수리 교육, 고객 차량 점검,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세션을 경험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 투어에서는 일반 수리 시설, 차체 수리 시설, 전기차 수리 시설, 차량 도색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게 된다.

/양성운 기자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2024년 12월 17일(화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창업교육자료**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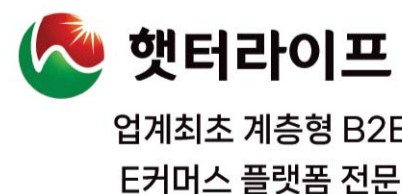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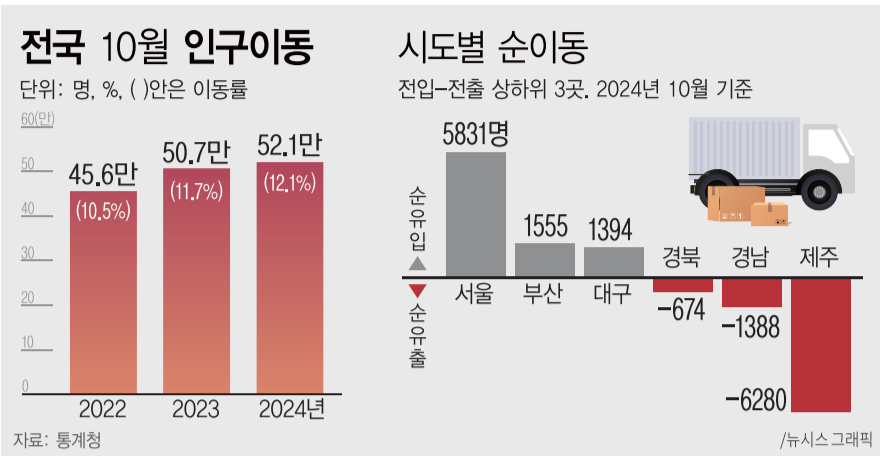
# 주택매매 늘자 지난달 51.1만명 이동... 3년 만에 최대규모

통계청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 통계' 이동자수, 전년비 2.8% 늘어 세종, 충남, 인천 순이동률 높아 인구동향,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올해 하반기에 주택매매가 늘면서 지난달 인구이동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종은 기존 인구 대비 타 지역에서 유입된 비중이 가장 컸고, 빠져나간 비중 1위는 서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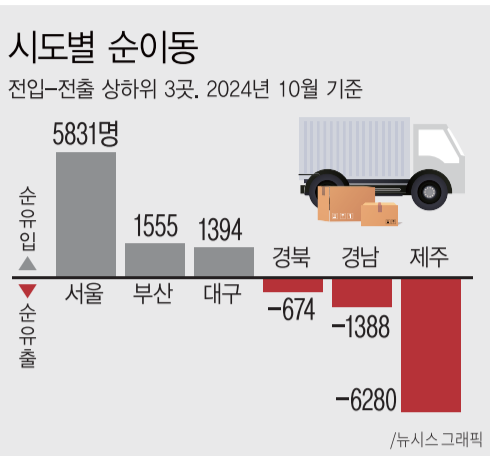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5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8% 늘어났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8~10월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700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2.5%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7~9월 주택매매건수가 20.8% 증가한 18만 건에 달한 영향



으로 전체 이동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8.5%, 시도 간 이동자는 31.5%를 기록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3.5% 증가, 시도 간 이동자는 1.4% 증가했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이 +1.2% (순유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충남



(+0.8%), 인천(+0.6%) 등이 이었다. 반면, 순유출 비율은 서울(-0.8%)이 가장 컸고 부산(-0.5%), 광주(-0.4%)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 거주민 수별로는, 경기도가 +5831명으로 1위였다. 이어 인천(1555명), 충남(1394명) 등 8곳이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6280명), 부산(-1388명), 경북(-

674명) 등 9개 시도에서는 순유출됐다.

경기와 인천은 인구가 유입되고 서울은 유출되는 흐름이 7개월 연속으로 지속됐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 분산은 이미 십수 년째 진행 중이다. 한편, 인구 유출이 이어지던 대구, 경남, 전북 지역 이동률은 소폭 옴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남·전북에서 순유입으로 이번 한 달 증가로 돌아섰다"며 "전북은 익산에서 아파트 입주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대구·경남은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해서 아주 소폭이지만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4년

0.03명 늘어난 이후 10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로 전환하게 된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감소 전환해 지난해까지 8년째 역대 최소를 갈아치운 바 있다.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 선이 무너졌고 2022년에는 0.78명까지 쪼그라든 바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는 혼인의 영향을 받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 대비 8.0%(4523명) 증가하면서 2007년 15.6%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3분기 혼인 건수도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한전 “전기요금 급등, AI로 예측 안내”

내달부터 취약계층 대상 시범서비스 100% 한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알고리즘·피드백 통해 전국 확대 계획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기요금 급등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혹한기(겨울철) 난방사용과 혹서기(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이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12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주관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로, 한전은 디지털전환실, 전력연구원 및 강원본부 등 사내 조직을 중심으로 애자일(Agile)팀을 구성해 9월부터 100% 한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

특히, 최신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와 AI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고객 맞춤형 UI/UX 설계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했다.

한전은 12월부터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주택용을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톡 형식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가구는 10일간 전기사용량으로 한달 사용량을 예측해 당일 전기요금에 과다하게 청구될 것으로 예상시 안내받게 된다.

한전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향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고객이 스스로 전력 사용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전력 인프라 고도화와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통해 국민 편의 극대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승용차·K-푸드 등 조지아 관세 즉시 철폐

산업부, '韓-조지아 EPA'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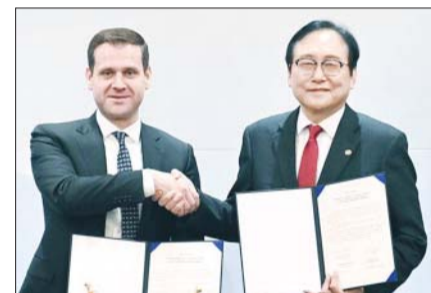
정부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 조지아와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와 K-푸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음반, 출판, 교육서비스가 개방돼 K-컬처 확산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라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차질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로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한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또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게나디 아르벨라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즉시 철폐,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 원료 공급 및 생산안정이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中, 송미령 장관에 규제완화 등 지원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단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농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韓-日, 스마트농업·고령친화식품 교류 박차

농식품부, 농림수산물협력위원회 양국 간 정책·연구동향 공유

한국·일본 양국이 농림수산물 분야 중 스마트농업·고령친화식품 등의 신성장 산업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26일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53차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이 농림수산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측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농림수산물 분야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기술협력을 비롯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고령친화식품 다양화 방안, 수직농장 기반 기능성식품 연구, 축산물 유래 기능성소재 개발 등 신규 공동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토양건전성 정의와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스마트농업 기술·제도 정보 교류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는 지난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간담회의에서 농림수산물 분야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합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진청,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축비용 산출로 효율적 예산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은 기상 재해에 대응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온실을 지을 때 2차원 도면을 활용해 왔는데 농업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건축 비용 산출이 쉽지 않은 데다 시공 후 해마다 변화하는 내부 환경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농진청은 2차원 도면의 설계 오류를 줄이고 온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의 경제적 설계를 도모

하기 위해 비닐온실 전용 구조 설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발한 GHModeler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온실을 설계할 수 있다. 농업인이 농장의 위치, 온실의 높이, 설치방향 등을 입력하면 실제로 지어지는 온실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온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둥, 지붕, 휨쇠, 외장재 등 온실을 짓는데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 건축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밸류업·임원인사로 반전 나서

유통·화학 등 주력사업 부진에 ‘쇄신 인사’ 관측에 무게 실려 신유열 전무 승진 여부도 관심

롯데GRS, 롯데리아 수익 강화 신규 브랜드 출시 등 계획 중

‘유동성 위기’ 루머로 타격을 입은 롯데그룹이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과 조기 임원 인사 단행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롯데는 28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 인사를 확정·발표한다. 롯데는 통상 12월 초중순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지만, 올해는 그룹 안팎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는 최근 불거진 루머와 관련해 ‘롯데그룹의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5000억원에 달한다.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이며,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 4000억원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롯데월드타워 전경사진. /뉴스1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강조했음에도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롯데가 임원 인사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를 단행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그룹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한 만큼 롯데 역시 전방위 인적 쇄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본업인 유통 사업의 악화와 화학 등 주력 계열사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쇄신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롯데쇼핑의 매출도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 추세다.

유통가 오너 3·4세대의 승진 행렬이 이어지면서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인사를 통해 승진한 신유열 전무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으로 롯데그룹의 신사업에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위기 극복 의지도 드러냈다. 롯데지주는 3개년에 걸쳐 주주환원율을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롯데지주는 SK, LG 등 주요 비교 기업 대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일부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투자주식 가치 제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주환원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상장 종속·관계사의 재무 목표도 제시됐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2028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8~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같은 기간 매출 5조 500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15%, 부채비율 100% 이하를 목표로 설정했다. 롯데쇼핑은 2030년 매출 20조원(해외 3조원 포함), 영업이익 1조 3000억원, 최소 주당배당금 3500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성장 전략도 발표했다.

롯데지알에스(GRS)는 롯데리아와 크리스피크림 브랜드의 수익성 강화와 엔지니어링의 실적 개선을 추진하며, 신규 브랜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우량 점포 출점과 저수익 점포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롯데지주는 임직원 중 여성 비율 30%, 장애인고용률 3.2%로 법정 의무(3.1%)를 초과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안재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美·日서 ‘소바바치킨’ 판매... 글로벌 정조준



CJ제일제당, 가공식품 K-치킨 만두 이어 ‘차세대 K-푸드’ 집중

국내 냉동치킨 시장 판도를 바꾼 CJ제일제당의 ‘소바바치킨’이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일본에서 ‘비비고 소바바치킨’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공식품 K-치킨의 글로벌 진출을 리딩하고 만두에 이은 차세대 K-푸드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비비고 소바바치킨’은 글로벌 현지 생산처를 활용해 11월 초부터 미국 코스트코(Costco)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일본에선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을 마쳤다.

12월에는 유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영국·프랑스·독일의 에스니 채널을 중심으로 ‘비비고 소바바치킨’을 선보이고, 향후 유통 채널과 국기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해외에 출시한 제품은 ‘단짠



비비고 소바바치킨 글로벌 제품. 왼쪽부터 미국, 일본, 유럽. /CJ제일제당

의 조화로운 맛이 특징인 ‘소이하니’다. 꿀을 더한 특제 간장소스로 구현한 감칠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명처럼 소스를 발라도 바삭한 ‘소바바치킨’의 핵심 특성은 그대로 살리되 해외 소비자의 조리행태와 입맛에 맞춰 국가별로 조금씩 맛의 변화를 줬다.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소스와 염지 강도를 높여 조금 더 강한 맛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소바바치킨’의 국내 시장 성공 요인이었던 ‘외식 수준의 맛 품질’과 ‘독보적 바삭함’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에 출시된 아시안 냉동치킨은 소스를 별도

로 부벼야 하거나 소스가 입혀진 경우 눅눅한 제품이 대부분인데 ‘비비고 소바바치킨’은 소스가 이미 발라져 있어도 바삭할 뿐만 아니라 조리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취식 편의성까지 챙겼다.

‘소바바치킨’은 CJ제일제당이 독자 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한 제품이다. 작년 4월 첫 제품인 ‘소이하니’를 선보인 이후 올해 11월 3주차 기준 누적 매출 1200억원 가까이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고메’ 브랜드로 판매하지만 K-푸드 대표 제품들은 모두 ‘비비고’로 통합·운영하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신원선 기자

## GS리테일 허서홍 號 출범... 4세 경영 본격

GS그룹 2025 정기 임원인사 리테일 대표이사에 허서홍 내정



그는 2005년 GS홈쇼핑 신사업팀에 입사해 GS에 합류했으며, 이후 미국 세브론에서 3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

허서홍 GS리테일 부사장이 GS리테일 대표이사로 내정되며 오너 4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허서홍 대표(사진)는 그룹의 삼각편대 중 하나로 꼽히는 유통 부문을 책임지게 되면서, 허연수 부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GS그룹은 27일 발표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허서홍 경영전략SU(Service Unit)장을 GS리테일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로써 허서홍 신임 대표는 GS그룹에서 GS리테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 만에 유통사업 최고 의사결정자 자리에서 오르며 본격적인 경영에 나서게 됐다.

1977년생인 허서홍 대표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이자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5촌 조카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정KPMG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한

2012년 GS에너지로 복귀한 뒤에는 LING사업팀 부장을 거쳐 전력·집단지너지 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미래사업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의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 내에서 전략적 판단력을 인정받았다.

GS리테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약 1년 동안 경영지원, 신사업,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하며 리테일 비즈니스의 미래를 준비해 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심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업 경쟁력을 혁신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쿠팡, 전국 호텔·펜션이 6만원대 부터

와우회원 대상... 테마별 숙소 마련

쿠팡이 ‘가성비 호텔 최저가 챌린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130여 호텔과 50여 펜션을 6만원대부터 선보인다. 투숙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다.

쿠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돋이 명

소, 송년회 특화 호텔, 겨울 레저 시설을 갖춘 리조트 등 다양한 테마별 숙소를 마련했다.

가장 먼저, 해돋이 명소로는 강원 동해안 지역의 숙소가 포함됐다. 주문진 인근에 있는 ‘SL 호텔 강릉’과 경포해수욕장 앞에 자리한 ‘경포 스카이에이 호텔’을 각각 최저가 9만원대, 18만원대에 만나 볼 수 있다. 속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갖춘 ‘속초 더블루테라 호텔’은 6만원대부터 예약 가능하다.

연말 모임과 송년회를 위한 호텔을 원리 해수욕장 인근의 ‘더위크앤리조트’와 송도 센트럴파크 앞에 위치한 ‘오리카이 송도파크 호텔’이 준비됐다. 각각 최저가 10만원대, 14만원대로 선보인다.

겨울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로는 스키장을 보유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와 서울 근교의 ‘골든툰업 에버용인 호텔’ 상품이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노량진 ‘형제상회’ 대방어 팝업 오픈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과 수원 광고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인기 매장 ‘형제상회’의 대방어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형제상회’는 2006년 노량진 수산시장에 문을 연 매장으로 수산물 도매시장 최초로 프리미엄 모듬회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또한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당일 배송 서비스와 회 전용 보냉박스를 도입하

는 등 품질 관리에 집중해 왔다.

이번 갤러리아 팝업스토어에서는 겨울 제철 생선인 대방어를 주제로 ▲도시락 ▲카이센동 ▲후토마끼 등을 비롯해 ▲광어, 도미, 농어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모듬회 ▲초밥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가격은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팝업스토어는 내달 5일까지 명품관에서 운영되며, 이후 수원 광고점에서 오는 2025년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잘 나가는 K뷰티... ODM·OEM·中企 등 제조기업 신성장

(제조자개발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코스맥스 연 매출 2조 눈앞

### 선진뷰티사이언스

3분기 창사이래 최대 실적  
아이레시피 신제품 공개

국내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업계 선두업체뿐 아니라 중소 화장품 제조 기업들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뷰티 산업에 다양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올해 연 매출 2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맥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조6081억원, 누적 영업이익 1356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 2023년 연간 영업이익 1157억원을 넘어섰다. 코스맥스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 연속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646테라스에서 열린 '세라마이드 유자 바이오 클렌징 오일' 출시 기념식에서 이성호 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가 '클린뷰티 2.0' 시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선진뷰티사이언스

코스맥스의 이 같은 성장에는 특히 기반 품질 경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스맥스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누적인 출원 특허 수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600건을 넘겨, 국내 ODM 업계에서 특허 출원 1위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 등록 특허 수는 650여 건으로 업계 최다 건수라는 것이 코스맥스 측 설명이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소재를 비롯해 미생물,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강한 특허로 관리하며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소재 제조 전문 회사인 선진뷰티사이언스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누적 실적을 기록했다. 선진뷰티사이언스의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60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43% 급증한 101억원이다.

올해 3분기 단일 실적만 살펴보면 매출액은 182억원, 영업이익은 25억원으

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 19% 늘었다.

한편 이성호 선진뷰티사이언스대표 이사는 이날 자사 클린뷰티 브랜드 아이레시피의 신제품 '세라마이드 유자 바이오 클렌징 오일'을 공개했다. 제품 원료부터 소재, 처방까지 화장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신제품은 피부 친화적인 성분뿐 아니라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기존 오일 제조 방식에서 요구되는 4단계 공정을 2단계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제품이다.

선진뷰티사이언스 관계자는 "일각에선 대규모 ODM사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K뷰티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찾기 힘들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선진뷰티사이언스가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구축한 클린테크와 클린뷰티 브랜드 아이레시피는 진정성과 혁신을 갖춘 K뷰티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탄탄' 제품군 /CJ올리브영

## CJ올리브영

### 건기식브랜드 '탄탄' 첫선

CJ올리브영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탄탄'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탄탄' 첫 제품군은 체지방 감소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탄탄 젤리 더블 컷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C3G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비이썬티 등 3종이다.

올리브영은 뷰티와 헬스 관련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이어트와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 요구와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 사실 아냐"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지주사 지위, 계열사 관리 강조  
"인사·기획·경영 등 업무 권리 있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 지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위와 한미약품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약품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6일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고소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계열사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우선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와 계열사 사이의 위탁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인사 외에 재경, 회계, 관재, 정보, 법무, 특허 등에 관한 전문인력, 전문 지식 및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성실로써 한미약품그룹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라며 "그룹의 모든 인사 발령은 당사 인사팀을 경유하고 당사 대표이사 와 협의한 뒤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해당 위탁계약서 제3조 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제7조 쌍방의 성실의무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 업무

프로세스는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 송영숙 대표 시절에는 라데팡스의 자문을 받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 신설됐고, 송영숙 대표와 전략기획실 실장이던 임주현 부회장의 승인 하에 그룹 전체 운영이 이뤄졌다"며 "현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에서 한미약품 대표이사/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이러한 한미약품 그룹의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독자 경영을 강행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8월 28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지주사의 동의 및 일체의 협의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 임종훈의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 등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가 진행했던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를 한미약품이 임의로 한미약품 업무로 귀속시킨 후, 합당한 비용처리가 곤란해지자 '지주사가 결재를 안 해주다'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은 한미사이언스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한미약품도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임종훈 부사장 임사 후 역할에 대해 특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 동국제약

### 이지스마트 구미 추 올리브영 매장 입점

동국제약은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구미 추'가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지스마트 구미 추'는 동국제약의 구강용해 필름 제형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필름'을 말랑쫄쫄한 제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음주 전후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동국제약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기념해 12월 1+1 행사를 운영하고 7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림대의료원

### '위런위로' 모금액 기부

한림대학교의료원이 베풀어린 행사 '위런위로(WeRunWe路)'의 모금액 전액을 화상환자 및 소방관 치료 지원 사업에 기부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모금액 3010만원을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화상 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들의 치료비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위런위로 캠페인은 지금까지 약 1억3000만원의 누적 기부금을 달성, 전액 어려운 이웃과 화상 환자, 소방관 치료를 위해 쓰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페르노리카코리아

### '발렌타인-더웨이팅' 출시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모던 클래식 스킨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이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더 웨이팅(사진)'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웨이팅은 선대 마스터 블랜더인 잭 가우다가 1959년부터 1994년까지 직접 관리했던 캐스크 중 40년 이상 숙성된 원액만을 엄선, 샌디 히슬롭의 진두지휘 아래 고도화된 블랜딩 과정을 거쳤다. 국내에는 15병만 입고된다.

/신원선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대표이사 사장 내정

삼성그룹 최초 여성 전문경영인 바이오시밀러 사업 전반 핵심적 역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그룹 최초로 여성 전문경영인을 내세워 기업 비전을 제시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부사장(사진)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김경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약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독성학 박사 학위를 취



득하며 제약·바이오 전문 역량을 쌓았다.

김경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010년 삼성전자 중합기술원 바이오신약개발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했으며, 2015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합류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본부 OI(오픈노베이션)팀, QE(품질엔지니어링)팀, BA(사업분석)팀 등을 두루 거쳤고 현재까지 개발본부장을 맡았다. 특히 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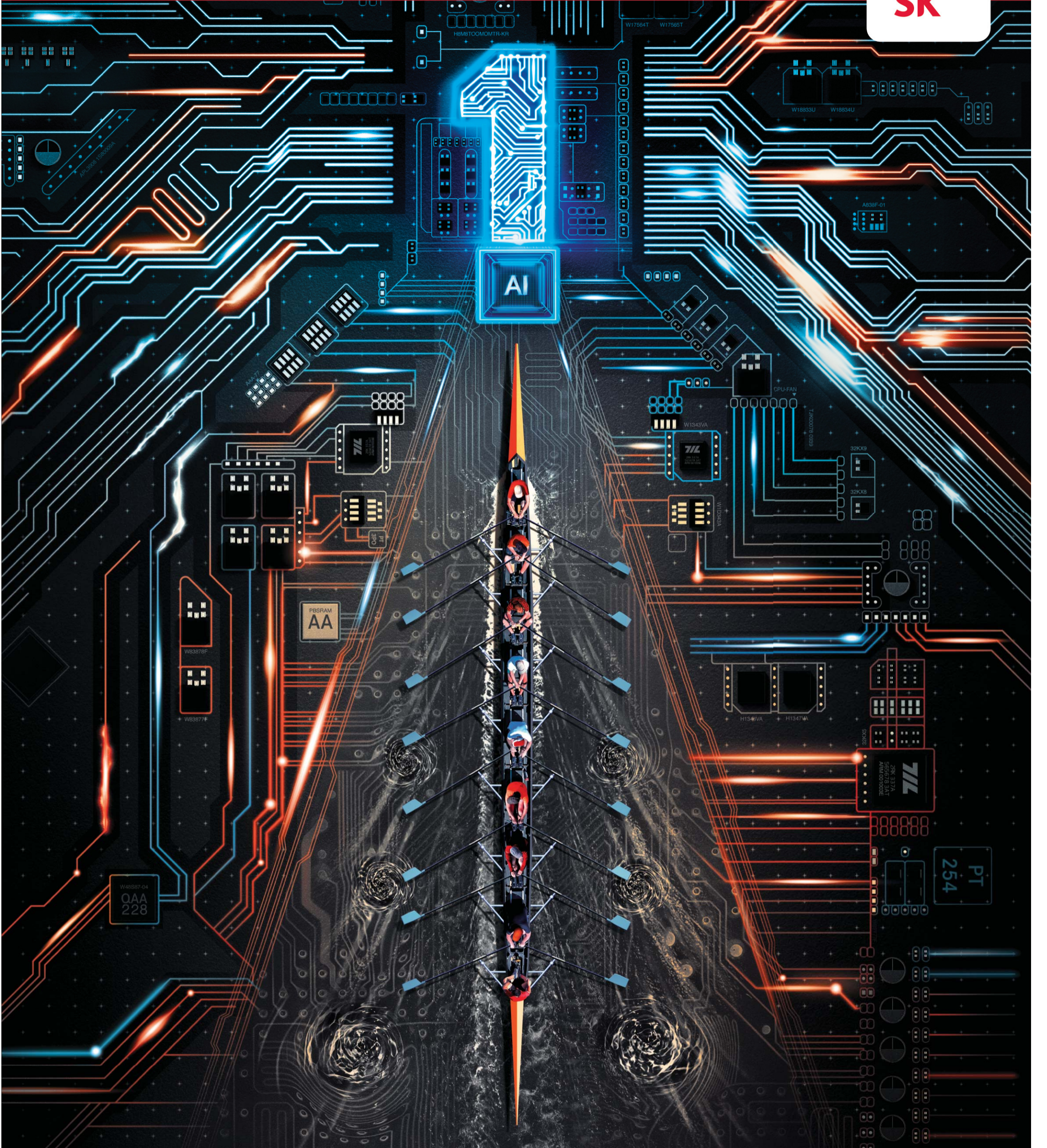
오시밀러 개발, 공정, 품질,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독보적인 전문성과 통섭의 리더십을 발휘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혁신과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만큼 이번 인사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당근-행안부, '온기나눔 캠페인' 함께 된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이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채원철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근



신세계인터, '대·중기 동반성장 유공 포상' 장관상

신세계인터내셔널이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지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기업 사회적 책임 담당(CSR) 김영훈 팀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신세계인터내셔널



LG U+,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진행

LG유플러스는 'ESG 데이'를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U+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용산사육과 마곡사육에서 지난 2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100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 LG유플러스는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한국거래소, '겨울나눔 행복드림 키트' 제작·후원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사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과 부산지역 여성 가정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눔 행복드림 키트를 제작해 후원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KRX 사회공헌주간 임직원 봉사활동의 첫 시작으로, 정은보 이사장(앞줄 왼쪽 네번째), 임직원 및 국민행복재단 이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거래소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선정

산업 발전 유공 과기부 장관 표창 수상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정보보호 산업 발전 유공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나, 2022년부터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공시해 왔다.

또한, 고객정보 관리 정책 수립·점검·모니터링 수행으로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동서식품, 동서문학상 선정  
김응숙 소설 '번지점프' 대상

1.8만개 작품 출품... 484개작 시상 대상 1000만원 포함 7900만원 수여

동서식품은 전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격년마다 개최되는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올해로 36년째를 맞은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이다. 지난 5월 말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의 총 4개 부문에 1만8629편이 출품되었고, 이 가운데 484개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김응숙 씨의 소설 '번지점프'가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사람의 발목에는 돌덩이 하나가 매달려 있다'는 목격한 명제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두 화자의 교차된 시선을 통해 독창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심도 있는 성찰과 서사력 높은 문장, 주제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로 환기하며 마무리한 결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한명희 씨의 '말줄임표'



동서식품이 지난 26일 개최한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에서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왼쪽)와 대상 수상자 김응숙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시)와, 유화란 씨의 '분홍 꽃핀'(아동문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서식품은 대상작 상금 1000만원을 포함해 수상자 484명에게 총 79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종합문예지 '월간문학' 12월호에 작품이 수록되는 등단의 특전과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동상 이상 수상작은 종이책 및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되는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작집'에 수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주한 프랑스 대사 '그랑 콜레오스' 탄다

르노코리아 새로운 공식차량 선정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가 주한 프랑스 대사의 새로운 공식차량으로 선정되었다.

27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6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그랑 콜레오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의 스마트키를 직접 전달했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그랑 콜레오스는 품질과 성능에 대한 르노코리아의 헌신을 고스란히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오른쪽)이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의 스마트키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답어나고 있다"며 "부산에서 태어난 이 처는 혁신과 친환경, 진보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엔컴퍼니, '프로액티브 어워드' 개최

임직원 도전·혁신 성과 공유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임직원의 도전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전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로 글로벌 테크놀로지 산업 이끌 리더 육성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는 지난 25일 사내 시상식 '2024 한국엔컴퍼니 프로액티브 어워드'를 열고 총 4개 부문의 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전 세계 각지에서 이뤄진 한국엔컴퍼니그룹 임직원들의 도전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이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구성원을 '프로액티브 리더'로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는 행사다.

올해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퍼포먼스(Performance) ▲챌린지(Challenge) ▲리더십(Leadership) 등 총 4개 부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단체 및 개인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양성운 기자

네이버웹툰, 韓 저작권 보호·발전 앞장

불법 유통 대응... 문체부 장관상

네이버웹툰이 27일 열린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네이버웹툰 측은 2005년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과 창작자 생태계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말했다.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총동원해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을 보태왔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

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 솔루션을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통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 '트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수상 소감으로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동아제약, '생명사랑 사회공헌상' 수상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여

동아제약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44회 생명의 전화를 듣는 후원의 밤' 행사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명사랑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생명의 전화는 1976년 한국 최초 전화상담 기구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 17개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긴급 전화상담 및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17년간 약 25만 개 이상의 박카스와 박카스맛 젤리를 후원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해 왔다.



지난 26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44회 생명의 전화를 듣는 후원의 밤'에서 정성원 박카스사업부 사업부장(오른쪽)과 임혜숙 생명의전화 이사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제약

동아제약은 앞으로도 생명의 전화 캠페인 파트너 역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애경산업 "댕글로 나눔 실천하세요"

'사랑의 연탄나눔 댕글 행사' 진행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오는 12월 4일까지 'AK Lover'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댕글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AK Lover는 애경산업의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단, 이벤트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애경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식 서포터즈다.

이번 행사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댕글 1개당 5장의 연탄이 기부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1인당 총 10장의 연탄을 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은 연탄 5000장을 추가로 더해 올해 연말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인사

- ◆DB손해보험 ◇부사장 승진 △개인사업부문 안승기 ◇부문장 △신사업부문 심재철 △보상서비스실 조태태 ◇상무 △경인사업본부 김장락 △신채널사업본부 임성훈 △신사업마케팅본부 최재봉 △장기업무본부 문창준 △일반업무본부 손석기 △전략사업본부 정광수 △영업교육본부 광경섭
- ◆삼다일보 △편집인·논설실장 홍성배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부총장 안현실 산학협력중점교수

부음

- ▲김정환씨 별세, 장승희(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차장)씨 빙부상 = 27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29일, 055-214-1900
- ▲이중식씨 별세, 박찬자씨 남편상, 이은영·은정·유진·승아·하정씨 부친상, 서보민·김성호·심광수·이중원(중앙홀딩스 대표이사)씨 장인상 = 26일,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031-902-4444

# 심각해지는 기술유출, 민관합동 대응 필요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우리 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줄줄이 새고 있다. 해가 갈수록 유출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건 25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건보다 19% 늘어난 수치다. 만약 이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의 피해규모는 56조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추정이다.

국가수사본부에 적발된 25건 가운데 18건은 중국으로 유출이 시도됐으며, 25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들도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통계도 이와 비슷하다. 국정원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한 건수는 97건에 이른다. 지난 9월 삼성전자의 전 수석연구원이 D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게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탈취 시도는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탈취 시도는 대기업만 타깃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이런 시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영업 노하우, 영업비밀들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총 589건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9%인 524건이 중소기업들에 집중됐다.

기술유형별로 보면 영업비밀 유출이 92%를 차지했으며 산업기술 유출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자(423건, 7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들 가운데 국외로 유출된 건은 72건이며 중국에 47건, 미국에 8건, 대만에 4건, 베트남과 일본에 각 2건씩 기술이 유출됐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특히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얼마나 많이 개발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도 중요한 시대다.

세계 각국은 이런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선 경제스파이법(EEA), 통일영업비밀법(UTSA)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에선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선 영업비밀 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열 포졸이 도둑 하나를 못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법률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첨단 기술이나 영업 노하우,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처벌 수위를 더 높여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비밀의 대다수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만큼, 인재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통&라이프부장 y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8일 (음 10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결과만 챙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48년생 친구의 안부를 챙겨라. 60년생 초대받아 기쁘나 이로운 일은 없다. 72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고 하는데, 84년생 오랜 친구의 앞날에 영향을 주는 충고를 한다.
- 소** 37년생 소머리 원숭이띠와의 거래가 유리. 49년생 성실한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61년생 지난 추억이 자꾸만 생각난다. 73년생 빗방울이 떨어지니 모를 심으려 할 때이다. 85년생 사려고 학수고대하던 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다.
- 호랑이** 38년생 아직도 남이 던져주는 희망을 바라고 있는가. 50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신경 써라. 62년생 인내의 끈이 보이니 조금만 더 노력하자. 74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를 만들어라. 86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 토끼** 39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51년생 어려움이 곳곳에 있으니 심호흡을 하고 길을 나서자. 63년생 남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하자. 75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만사가 고맙다. 87년생 끝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힘을 내서 전진.
- 말** 40년생 남의 눈에 눈을 내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52년생 눈치 빠른 행동이 상사의 눈에 든다. 64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는 하루. 76년생 서두르지 말고 상사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얻는다. 88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면 낭패.
- 뱀** 41년생 물 흐르는 대로 일이 진행. 53년생 동네에서 운동할만한 곳을 찾아보자. 65년생 시시비비를 가려봐도 내 허물만 드러난다. 77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된다. 89년생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다 망신.
- 양** 42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최고의 조력자. 54년생 명성이 깔려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66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78년생 오너는 끝없는 노력의 성과이니 도전해봐라. 90년생 새로운 계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 양** 43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55년생 선풍기 시작하지 말고 많은 준비를 해라. 67년생 가족과 친구를 잘 챙겨야 외롭지 않다. 79년생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것이. 91년생 우울하다면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 원숭이** 44년생 옷을 준비를 하고 상대와 대화를 시작. 56년생 어제 결정된 일을 오늘 반복할 것이니 실망하지 마라. 68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 80년생 멋지게 살고 싶다면 현실적 계획을 먼저 세우자. 92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 닭** 45년생 친구에게 밀 빼진 독에 물 붓기하고 있는 상태. 57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69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행복. 81년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날. 93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 개** 46년생 지는 태양은 막을 도리가 없다. 58년생 기분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린다. 70년생 마음이 흐리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82년생 꾸준히 견디 보면 멈추게 되는 휴식시간도 오게 된다. 94년생 북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있다.
- 돼지** 47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59년생 힘들어도 해 오던 일을 추진. 71년생 겸손이 미덕이니 양보를 생활화. 83년생 공과 사의 구별이 엄격해야 타인의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95년생 상태를 청산하면 2배로 돌아오겠다.

# 안정 택한 삼성전자의 피치 못할 사정



**기지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위기에 처한 삼성이 안정을 택한 인사 발표를 하자 업계 인פק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삼성이 혁신을 안하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중심으로 실적 악화에 처하면서 내부 조직 쇠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앞서 이재용 회장도 조직의 위기를 잘안다면서 혁신을 시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1회 2024-삼성물산 '부담합병·회계부정' 관련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

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를 연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 속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한중희-전영현' 투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배태랑 경영진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일부 경영진만 교체하는데 그쳤다.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체제'가 더욱 견고해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의 사령탑인 정현호 부회장도 연임된 데 이어 최근 인사인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을 사업지원TF담당으로 이동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12년 만에 김용관 사업지원TF 부사장을 DS 부문 신설 보직인

경영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이미 퇴임한 이원진 상담역도 다시 복귀시켰다. 이원진 상담역은 지난해 이미 일선서 물러났지만 1년만에 DX부문 글로벌 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선임됐다.

다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한진만 미주 총괄 부사장이 발탁되고 CTO 사장에는 남석우 DS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배치됐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도 안정 인사를 택한 데는 '인재부족' 으로 인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내부 인재부족 문제가 이번 인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된 셈이다. 50년 한국의 성장과 반도체의 역사를 이끌어온 삼성전자가 향후 인재 양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것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koojia\_tea@



## 김상회의四季

### 명의 이정표

지금은 첨단 기술의 시대인데 명리학을 찾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상담을 청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통계라니 기술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준다지만 기술이 인생의 불안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삶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다고 본다. 조선 시대 사람의 생활보다는 당연히 현대인의 생활이 훨씬 안락하다.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살면서 만나는 근본적 불안은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다는 조바심, 자식 성공을 바라는 마음, 밥벌이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기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또 다른 이유는 이정표가 필요해서다. 산다는 건 선택이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오면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고민한다. 그런 고민을 가볍게 해주고 선택을 도와주는 게 명리학의 코드이다. 앞길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주를 기반으로 이정표를 찾으면 위험이 줄어든다. 운전할 때도 짐작으로 길을 찾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필자의 월광사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는 기업체 CEO나 전문직이 있다.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자칫 비껴가는 선택이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명리의 코드는 그럴 때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이정표를 세워준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자연의 기운 탐구, 세상 만물의 이치 분석, 역사적 맥락을 포괄하는 종합 학문, 이런 통섭의 힘이 인생 이정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아니줄 수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6	7 3
		8	5
8	1		2
4 6			
2			6
			3 9
5		3	2
	9	1	
6 4		7 2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코너의 열과열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8 6 2 2 1 1 9
1 2 6 8 9 7 8 2 9
6 8 2 7 2 9 9 1 8
9 7 2 1 9 8 8 6 2
8 9 1 2 6 8 2 9 7
7 6 9 9 8 1 7 8 2
7 1 9 2 8 2 9 8 6
8 2 8 9 7 6 2 9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6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부산시, 범어사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속도

### 금정산·범어사 상생발전 협약 국내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기대

### 삼국유사·금정산성·범어사 등 63점 국가지정 문화자원 위치

부산시는 26일 범어사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오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2006년에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4년에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염원이 본격화됐다.

이에 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으나 이후 범어사, 경남도, 양산시, 부산 6개 자치구,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심수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범어사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전향적인 입장을 표함으로써 국립공원 지정에 속도감이 더해지고 있다.

시와 범어사 등 관계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해 ▲부산의 진산(眞山)인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호 협력 ▲범어사의 수행 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 및 탐방로 개설 지원 ▲범어사와 그 주변 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등 상호 공동 노력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금정산이 2021년 9월 환경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전국 국립공원 최상위 수준의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도심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정산에는 삼국유사, 금정산성, 범어사 등나무 군락 등 63점의 국가

지정 문화자원 등이 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주민 자긍심 고취,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금정산과 범어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과 사찰로 자리매김해 부산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림으로써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부산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끝까지 뜻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지난 25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디아이지에어가스㈜와 여수국가산단 내 수소, 액화탄산 등 제조시설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시 수소 제조시설 신설 투자협약

여수시는 전남도, 디아이지에어가스㈜와 여수국가산단 내 수소, 액화탄산 등 제조시설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최정기 여수시부시장, 오규석 디아이지에어가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디아이지에어가스㈜는 오는 2026년까지 여수국가산단에 2042억 원을 투자해 연간 수소 6천 톤 및 액화탄산 16만 톤 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인접 기업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활용해 초고순도 수소·액화탄산을 생산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고 산단 기업체 및 국내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또,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을 비쳐 건설 및 협력사 등 대규모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중부내륙선 2단계 사업을 앞두고 문을 연 문경역.

## 충주~문경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30일 판교행 KTX 열차 첫 운행

### 경북도, 도민 수도권 접근 개선

27일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가 개통되면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과 수도권 관광객의 경북도 방문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경북도는 이날 문경역 광장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이자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충주~문경) 개통식을 개최했다.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은 총연장 93.2km로, 총사업비 2조5482억원이 투입돼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되었는데, 첫 운행 열차는 오는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하는 KTX-이음(10개 역) 상행편으로, 앞으로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한다.

1단계 이천(부활)~충주구간(54.0km)은 2021년 12월 개통해 운행 중이며, 2단계 충주~문경구간(39.2km)이 완전 개통되면서 문경에서 판교까지 KTX-이음(EMU260) 운

행으로 1시간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수서~광주선(북북선 19.4km),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중인 문경~김천선(69.8km),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7.9km)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서에서 문경, 상주,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 남북 중심지를 종단하는 내륙 간선철도망이 완성된다.

경북도는 문경시,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철도 운행 계획에 맞춘 버스노선 개편 등 철도 접근성 제고와 문경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문경새재 등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 사업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천~문경 철도를 시작으로 경북에 철도 5개 노선이 올해 말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철도교통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지역 신거점화를 이뤄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이루고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경남도, 근로자 기숙사건립에 24억 확보

###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곳 선정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밀양시, 함양군 등 신청한 2곳이 모두 선정돼 3년간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한 내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으로 원활한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내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말에 앞당겨 시행한 공모사업이며 전국 7개소 선정에 경남도가 2개소를 유지했다.

경남도와 밀양시, 함양군은 공모 선정을 위해 신청 전부터 경남연구원,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의 전

문가 컨설팅과 현장 평가를 거쳤다. 이어 최종적으로 부지 확보 상황, 인허가 가능 여부,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 공모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에 선정된 밀양시는 24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660㎡, 14실 56명 규모, 함양군도 24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034㎡, 28실 56명을 수용할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다. 내년에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 기획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거창군이 2022년 도내 처음으로 선정돼 11월 2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신안군, 2024 전남 명예예술인 3명 지정

### 한국화 박용규·김은옥, 사진 원수철

전남 신안군은 2024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3명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신안군 예술인은 한국화 박용규 작가(82·사진) 한국화 김은옥 작가(68), 사진 원수철 작가(72)이다.

전라남도는 문화예술로 풍요롭게 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예술인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만 50세 이상으로 해당 분야 15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 도내 10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다. 2024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신안군 원로 예술인 3명을 포함하여 8명이 지정됐



다.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서 수여, 명예 현판 제작, 문화예술 행사 초청 및 예우 등을 받게 된다.

신안군 원로작가 우암 박용규 화백은 한국화의 거장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의 작품은 1004점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 상설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초현 김은옥 작가는 신안미술협회와 신안예총을 조직하여 신안군 문화 예술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팝업 개최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상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소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청송군 도로 제설 종합대책 마련

청송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설,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군은 선제적으로 제설제(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모래, 소금 등)를 확보하여 상습결빙구간 등 취약구간 16노선에 방방사 12,500 포대를 배치하였으며, 염수분사시설 3개소(덕천지구, 피나무재, 천천지구)와 제설작업에 투입될 장비(제설차량 15대, 트랙터 50대, 제설삽날, 모래살포기 등)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제설작업에 임할 사전준비를 완료하였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미국립보건원에 팬데믹 봉쇄 회의론자 지명 /사진 뉴시스  
▲골드만삭스 "트럼프 관세 인상 시 미 인플레이션 1% 상승"

▲시진핑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정의...권리 회복지" /사진 뉴시스  
▲中 "세계 첫 자율 주행 위성" 가오징-203과 가오징-204 발사



▲이시바 日총리, 한일의원연맹과 면담...사도광산 추도식 등 언급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사상 최대 규모' 러시아 무인기 공격에 곳곳 정전



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밸류업 등 반전 나서  
니



Life

K뷰티  
ODM·OEM·중소 등  
제조기업 신성장  
L2



# AI교과서 도입 눈앞인데... 기기·지원인력 등 인프라 미흡

학교 55%, 인터넷속도 점검 안해 4곳 중 1곳, 디지털기기 '미보급' 지원인력 등 시도교육청별 격차 커 도입 전 종합적인 점검·개선 필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은 인터넷 속도와 지원 인력 배치 등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이었다.

### ◆학교 26%, 무선 인터넷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년 AIDT 대상 학년(학교) 디지털 인프라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대상 학교 1만2090곳 중 54.8%에 해당하는 6631곳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 5459곳 중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며 AI 교과서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서도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에 달했다. 이중 1300개 학교는 교실의 무선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했으며, 152개교는 최신AP(WiFi6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디지털교과서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1차로 기기 수량을 확인한 학교 6749곳 중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가 1720교였다. 4곳 중 1곳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셈이다. 기기 보급 조사 대상을 전수로 넓힐 경우 보급이 필요한 학

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 미비

이같은 상황은 시도교육청별로 격차가 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디지털 기기 수량 보급 진단을 완료한 곳은 9개 지역이다.

대상 학교인 1338곳 모두 진단을 완료한 서울의 경우, 32.5%에 해당하는 435곳에만 디지털 기기 보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903곳은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다.

강원지역은 573개교 가운데 102개교(17.8%)에서 디바이스 성능개선이 필요했고, 경남은 1001개교 중 419개교(41.9%)가 충전보관함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인터넷 속도의 경우, ▲대전 307교 중 190교(61.9%) ▲인천 514교 중 268교(52.1%) ▲강원 573교 중 279교(48.7%) ▲경남 1001교 중 374교

(37.4%)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서울이 전체 진단 대상 1338교 중 1274교(95.2%)에 디지털 튜터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한 반면, 이외의 지역은 ▲경남 1001교 중 38교(3.8%) ▲인천 514교 중 27교(5.3%) ▲강원 649교 중 59교(9.1%) 등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디바이스, 무선 속도 등을 종합 점검·개선해 내년 3월부터 활용에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법적 근거, 교과서 제작 및 보급, 교원 연수,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추가 인력이 배정된 학교도 53.1%에 불과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연세대, 내달 8일 수시논술 추가시험 실시

시험문제 유출 논란에 추가시험 결정 1차 합격자도 선발... 합격생 2배 ↑

'시험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 학교가 내달 8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 2차 시험은 물론, 지난 1차 시험 합격자 모두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27일 연세대에 따르면, 내달 8일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2차 시험을 시행한다. 다만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논술시험(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결시생은 다시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

연세대는 1차·2차 시험에서 모두 각 261명을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합격생 규모의 두 배를 올해 해당 전형에서 선발하게 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예정대로 12월 13일 발표되며, 2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학교는 본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일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문제의 원인, 파급 효과, 임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왔다"라며 "법적 판단을 통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하려 했으나, 단기간 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해당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 다시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현진 기자

## 시흥시, '시군 종합평가' 3년간 경기도 1위

행정역량 입증... 인센티브 4억 확보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그룹 내 1위(최우수)와 경기도 전체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우수, 3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로 시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과 도정 주요 시책지표를 통해 행정서비스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 평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행정서비스 실적을 바탕으로,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 '정부 주요 시책지표 74개' ▲ '도정 주요 시책지표 30개' 총 104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지표실적 평가(80%)와 전년도 정부합동평가(20%) 실적을 합산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올해 평가에서 102.33점(가점 포함)을 획득해 경기도 역대 최고점수를 3년 연속 경신했으며, 3년 연속 모든 지표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한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유자녀 무주택 지원, 적정 수혜자 검토해야”

### 서울시의회

수혜 가구 수에 초점 두기보다 출생률 변화 등 목표로 설정해야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달성 목표를 수혜 가구 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재설정하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51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

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를 낳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임양)한 가구다. 단,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시의회는 “출생률 제고 및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혜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는 본 사업의 달성 목표를 '주거비 지원 출산 무주택 가구 수'로 단순히 수혜 가구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출생률 변화' 및 '주거 안정성' 지표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원 종료 후에는 출생률 증가 기여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평가해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5 | 해질 / 17:15

11월 28일(木) 음력 : 10월 28일

수도권 날씨 -2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3/4, 동두천 -4/5, 가평 -3/4, 파주 -5/4, 서울 -2/4, 양평 -2/4, 수원 0/4, 용인 0/4, 평택 0/5, 백령도 3/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6연승 질주'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완파하고 2위 도약 /사진 뉴스스  
▲종합격투기 전문단체 K MMA “여자부 시합 접수비 무료”

▲KOVO 출범 20주년 기념 BEST7 투표시작  
▲LG, 새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영입...엔스 결별



▲SSG, 유망주 캠프 마무리...MVP 투수 박시후·야수 최준우  
▲KIA, '우승 주역' 네일과 180만 달러에 재계약 /사진 뉴스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SAMSUNG

## 시콤보여야 하는 이유 써본 사람들이 직접 답해드립니다

한 번에 세탁 건조는 기본  
끝나면 자동 문열림까지 알아서

“세탁건조기 비교” 영상을 검색해보세요 | 

## BESPOKE 시콤보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실제 소비자들의 후기를 활용하여 연출되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일부 과장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것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후기는 당시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 모델 (WD25U869\*\*\*\*) 제품 이미지를 모델에 따라 상단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세탁 단독 운영 종료 후, 건조 단독 운영 종료 후, 세탁과 건조 연속 운영 종료 후 모든 상황에서 동작합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의 코스를 돌릴 때 문열림 기능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기능을 모반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Smartthings 에 등록 후 스마트컨트롤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일부 모델에 한해 지원 (WF522HD\*\*P\*WD25DB8995B\* 등)



“오토 오픈 도어 기능으로  
세탁 건조 후에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으로  
습기와 열기를 자동으로 환기시켜 눅눅함이나 냄새 걱정이 없어요.”

“종료 후 문 열기 위해 기다리는 건 옛날 세탁기와 다를 바가 없다”

“세탁 건조 후 자동 문열림 필수 시대”

“편백하고 방치해도 빨래 때문에 다시 돌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빨래 돌리고 깜빡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나에 게으름을 똑똑한 시 콤보가 커버해주는구나!”

“세탁기나 후미로에서도 쉽게 설정이 가능하니까, 세탁기 돌려놓고 깜빡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하연이다 하고 와도  
빨래가 번송 번송한 상태!!

“이제 셔투를 필요 없습니다.”

BESPOKE 시콤보로 바꿀 원스  
바꿔보실까요?

